

2015年 學術發表會



내일을 위한 箴言, 東洋古典



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사)전통문화연구회

후원 : 한국고전번역원 / (사)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모시는 글

秋聲이 나무들 사이에 가득하여 모든 잎사귀가 꽃이 되는 청명한 계절에, ‘내일을 위한 箴言, 東洋古典’이라는 주제로 2015년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회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동양고전을 번역함으로써 현대화하고, 그 結實인 고전지식을 대중들과 공유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아울러 다년간 정보화 사업에 매진하여 한글한자자동변환프로그램과 동양고전어휘정보망 구축 등의 성과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학술발표회’는 본회에서 동양고전역주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十三經注疏’ 번역의 중간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장으로, 東洋 思想의 원류이자 哲學의 핵심인 ‘십삼경주소’에 수록된 《論語注疏》《禮記正義-中庸·大學》번역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향후 ‘십삼경주소’ 역주사업을 위한 발전적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한자교육과 어문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언어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한자교육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을 繼承·發展시켜 동아시아 三國鼎立의 大業을 완수하고자 마련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일

전 통 문 화 연 구 회

상임고문 李漢東
이사장 趙富英
회장 李啓晷

▣ 행사 일정 ▣

● 사회 : 田好根(경희대 교수)

◆ 국민의례

◆ 개회사 14:10~14:25

┃ 鄭愚相(서울교대 명예교수)

◆ 축 사 14:25~14:35

┃ 李龍兌(퇴계학연구원 이사장)

◆ 出版기념식 《論語注疏》《禮記正義-中庸·大學》 14:35~14:50

◆ 주제발표 14:50~17:00

- 論語學에서 《論語注疏》의 가치와 영향
- 朱熹의 《論語注疏》 수용과 재해석을 중심으로 ┃
鄭太鉉(한국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7
- 《大學》과 《中庸》을 통하여 본 明善과 誠身の 삶 ┃
李光虎(前)연세대학교 교수17
- 고전 자료의 통합과 연계 방안 - 동양고전어휘DB를 중심으로 ┃
尹鍾雄(윤즈정보개발 소장)31
- 아래아한글용 漢字路 Add-in 공개 ┃
安成守(전통문화연구회 연구원)45
- 漢字教育과 21세기 言語文化 改善 運動 ┃
朴德裕(인하대학교 교수)53

◆ 폐 회 및 다과회 17:00

論語學에서 《論語注疏》의 가치와 영향

- 朱熹의 《論語注疏》 수용과 재해석을 중심으로

鄭 太 鉉(한국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

1. 서론
 - 1) 《論語注疏》
 - 2) 古注와 新注의 특징과 성격
 - 3) 연구목적 및 방법
2. 본론
3. 결론

1. 서론

1) 《論語注疏》

《論語注疏》는 十三經¹⁾注疏 중의 하나로, 孔子가 門人, 또는 당시 爲政者 등과문답한 말과 문인들 간의 주고받은 말을 수록한 《論語》 經文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何晏(魏人)의 注인 〈論語集解〉에 邢昺(宋人)의 疏인 〈論語正義〉를 合本한 冊名이다.

《논어집해》는 魏나라 明帝 때에 何晏이 荀顗·曹羲·鄭冲·孫邕 등과 함께 편찬한 주석서로, 현존하는 《논어》 주석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集解’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先代 또는 同時代 학자들의 說을 모아 수록한 것이므로 失傳되고 전해지지 않는 孔安國·包咸·周氏·馬融·鄭玄과 陳群·王肅·周生烈 등 漢·魏 시대 학자들의 說이 다수 실려 있다.

邢昺의 《論語正義》는 皇侃의 《論語集解義疏》에 실린 것 중에 번잡한 說과 佛家와 道家의 玄學적인 요소가 담긴 說 등은 모두 刪削하고, 오직 經文에 의거해 經을 해석하면서 경문에 담긴 義理, 곧 微言大義를 천명하는 데 치중하여, 訓詁學인 漢學에서 義理學인 宋學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經學史的 의의가 크다 하겠다. 또 名物과 典

1) 十三經은 《周易》《尚書》《毛詩》《周禮》《儀禮》《禮記》《春秋左氏傳》《春秋公羊傳》《春秋穀梁傳》《論語》《孝經》《爾雅》《孟子》 등 儒家經典을 일컫는 말이다. 십삼경은 唐太宗의 勅命으로 孔穎達 등이 편찬한 五經正義에서 점차 확대되어 南宋代에 마지막으로 《孟子》가 經의 지위를 획득하여 추가됨으로써 확정된 일종의 儒家經典 叢書라고 할 수 있다.

章制度 등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하니,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라 하겠다. 그러므로 《논어주소》는 朱子の 《論語集注》와 함께 현존하는 《논어》 주석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 주석서라 하겠다.

2) 古注와 新注의 특징과 성격

注는 經典의 난해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주석을 뜻한다. 막힌 水路에 물을 注入하여 소통시킨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注의 내용은 경전에 실린 단어의 뜻을 풀이하는 訓詁를 비롯하여 物名, 考證, 意味의 풀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經典注釋學에서는 注를 ‘古注’와 ‘新注’로 구분하는데, 何晏의 集解를 ‘古注’라 하고, 朱子의 集註를 ‘新注’라 한다.

古注와 新注는 주석의 내용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고주는 경전의 글자와 文句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이하는 데 치중하였으므로 경이 담고 있는 철학적 가치와 의미를 밝히는 데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이는 訓詁에 치중한 당시 학문의 풍토에 기인 것이라 하겠다. 이를 일러 ‘訓詁學’ 또는 ‘漢學’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新注는 訓詁보다 經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敷衍하여 微言大義를 천명하는데 치중하였으므로 名物 訓詁 등에는 소략한 점이 없지 않다. 이를 일러 ‘義理學’ 또는 ‘宋學’이라 한다.

3) 연구목적 및 방법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학문에 큰 전환점을 마련하고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주자가 《논어주소》를 수용하고 재해석한 내용을 통해, 《논어주소》가 論語學에서 가지는 가치와 후대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려 한다. 《논어주소》의 전체 501장(《논어집주》로는 전체 498장) 가운데 주자가 古注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대략 135장 정도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거론하기에는 紙面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經文의 번역이나 의미가 상충하여 전혀 다른 것 10장만을 뽑아 그 차이점을 비교검토하려 한다. 그 차이를 살펴보다 보면 주자가 古注를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은 것, 수용은 하되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것, 고주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새로이 주석한 것 등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또 그 과정

에서 《논어주소》의 가치가 저절로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

2. 본론

본론에서는 《논어》 각 篇에서 古注와 新注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구체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두 주석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주석에 근거하면 經文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예시한 篇과 章節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편 명	장절 (《집주》)	原 文
①	八 佾	8장(8장)	子夏問曰 “巧笑倩兮，美目盼兮，素以爲絢兮，’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子曰 “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②		16장(16장)	子曰 “射不主皮，爲力不同科，古之道也.”
③	里 仁	8장(8장)	子曰 “朝聞道，夕死可矣.”
④	公治長	9장(8장)	子謂子貢曰 “女與回也孰愈?” 對曰 “賜也何敢望回? 回也聞一以知十，賜也聞一以知二.” 子曰 “弗如也，吾與女弗如也.”
⑤		20장(19장)	季文子三思而後行. 子聞之，曰 “再，斯可矣.”
⑥	泰 伯	15장(15장)	子曰 “師摯之始關雎之亂，洋洋乎盈耳哉!”
⑦	子 罕	19장(18장)	子曰 “譬如爲山，未成一簣，止，吾止也. 譬如平地，雖覆一簣，進，吾往也.”
⑧	顏 淵	8장(8장)	棘子成曰 “君子質而已矣，何以文爲?” 子貢曰 “惜乎! 夫子之說君子也，駟不及舌.”
⑨	子 路	22장(22장)	子曰 “南人有言曰 ‘人而無恒，不可以作巫醫.’ 善夫!” “不恒其德，或承之羞.” 子曰 “不占而已矣.”
⑩	衛靈公	32장(32장)	子曰: “知及之，仁不能守之，雖得之，必失之. 知及之，仁能守之，不莊以莅之，則民不敬. 知及之，仁能守之，莊以莅之，動之不以禮，未善也.”

※ 진한 글씨로 강조한 부분이 주로 다를 내용이다.

이상 표로 정리한 10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진한 글씨로 강조한 부분을 위주로 《注疏》와 《集注》의 주석내용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²⁾

2) 편의상 《論語注疏》의 장절을 표기한다.

① 子夏問曰“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何謂也?”子曰“繪事後素.”曰“禮後乎?”子曰“起予者, 商也. 始可與言詩已矣.”(八佾-8장.)

【古注】繪, 畫文也. 凡繪畫, 先布衆色, 然後以素分布其間, 以成其文, 喻美女雖有倩盼美質, 亦須禮以成之.

【朱注】繪事, 繪畫之事也. 後素, 後於素也. 謂先以粉地爲質, 而後施五采, 猶人有美質然後可加文飾.

‘繪事’는 新古注 모두 ‘그림 그리는 일’로 해석하여 차이는 없으나, 古注 는 ‘素’를 ‘흰 물감’으로 풀어, 그림을 다 그린 뒤에 흰 물감을 그림의 行間에 칠하여 그림을 완성하는 뜻으로 해석하였으니, 곧 ‘素’를 禮에 비유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新注는 ‘素’를 ‘흰 천’으로 풀어, 흰 바탕이 있는 뒤에 그림을 그리는 뜻으로 해석하였으니, 곧 ‘素’를 인간의 바탕인 ‘忠信’에 비유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古注’의 해석은 아무리 ‘倩兮, 盼兮’한 아름다움이 있어도 禮가 있어야 진정한 美人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新注’의 해석은 ‘倩兮, 盼兮(素)’한 아름다운 자질이 있는 뒤에 文飾(禮)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② 子曰“射不主皮, 爲力不同科, 古之道也.”(八佾-16장.)

【古注】射有五善焉. 一曰和志, 體和. 二曰和容, 有容儀. 三曰主皮, 能中質. 四曰和頌, 合雅頌. 五曰興武, 與舞同. 天子三侯, 以熊·虎·豹皮爲之, 言射者不但以中皮爲善, 亦兼取和容也. 爲力, 力役之事. 亦有上中下, 設三科焉, 故曰不同科.

【朱注】射不主皮, 鄉射禮文. 爲力不同科, 孔子解禮之意如此也. 皮, 革也. 布侯而棲革於其中以爲的, 所謂鵠也. 科, 等也. 古者, 射以觀德, 但主於中, 而不主於貫革, 蓋以人之力量有強弱, 不同等也.

‘主皮’는 古代의 射禮에 射者가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德目중의 하나이다. 고주에서는 ‘射不主皮’를 ‘射禮에는 과녁을 맞히는 것을 숭상하지 않는다.’로 풀고, ‘爲力不同科’를 ‘勞役을 배정함에는 등급을 달리한다.’로 풀어, 두 가지를 별개의 일로 해석하였고,

신주에는 ‘主皮’를 ‘활을 쏘아 과녁을 뚫는 것’으로 풀하고서 ‘射不主皮(射禮에는 과녁을 뚫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를 鄉射禮의 文句로 풀고, ‘爲力不同科(힘에 등급이 같지 않아서이다.)’를 공자께서 옛날에 ‘射不主皮’한 뜻을 풀이한 것으로 풀었다.

③ 子曰 “朝聞道，夕死可矣。”(里仁-8장.)

【古注】言將至死，不聞世之有道.

【邢疏】此章疾世無道也. 設若早朝聞世有道，暮夕而死，可無恨矣. 言將至死不聞世之有道也.

【朱注】道者，事物當然之理. 苟得聞之，則生順死安，無復遺恨矣. 朝夕，所以甚言其時之近.

고주는 孔子가 거의 죽을 때가 되어 가는데도 세상에 道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함을 한탄하는 말로 풀었다. 다시 말하면 아침에 세상에 도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저녁 때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한탄한 말로 풀 것이다.

신주에는 道를 사물의 당연한 이치로 풀고서, 이 이치를 깨달으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뜻으로 풀었다. 주자의 해석은 玄學的, 또는 佛家的 색채를 띠다하겠다.

④ 子謂子貢曰 “女與回也孰愈?” 對曰 “賜也何敢望回? 回也聞一以知十，賜也聞一以知二.” 子曰 “弗如也，吾與女弗如也.”(公冶長-9장.)

【古注】既然子貢不如，復云 吾與女俱不如者，蓋欲以慰子貢也.

【朱注】與，許也.

고주는 ‘與’를 並列을 나타내는 助詞로 파악하여 ‘나와 너’ 즉, 孔子 자신과 子貢 모두 顏回만 못하다는 뜻으로 풀었다. 그러나 주자는 ‘與’를 ‘인정하는 말’로 보아 ‘나는 네(자공)가 안회만 못함을 인정한다.’고 풀었다.

⑤ 季文子三思而後行. 子聞之，曰 “再，斯可矣.”(公冶長-20장.)

【邢疏】此章美魯大夫季文子之德. 文子忠而有賢行，其舉事，皆三思之，然後乃行，常寡過咎. 孔子聞之 曰 “不必及三思，但再思之，斯亦可矣.”

【朱注】程子曰 “爲惡之人，未嘗知有思，有思則爲善矣. 然至於再則已審，三則私意起而反感矣，故夫子譏之.”

○ 愚按 季文子慮事如此，可謂詳審而宜無過舉矣，而宣公篡立，文子乃不能討，反爲之使齊而納賂焉，豈非程子所謂私意起而反感之驗歟? 是以君子務窮理而

貴果斷，不徒多思之爲尙.

《左傳》에 의하면 季文子는 공자가 태어나기 17년 전(襄公 5년)에 죽은 사람이다. 형병은 ‘文子는 충성스럽고 어진 德行이 있어서 일을 처리할 때마다 모두 세 번 생각한 뒤에 실행하였으므로 항상 허물이 적었다.’고 말하면서 ‘再, 斯可矣.’를 ‘세 번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두 번만 생각했어도 可하였을 것’이라고 풀이하여 공자가 계문자를 칭찬한 말로 풀었다.

반면 주자는 ‘세 번 생각하면 사사로운 마음이 일어나니, 두 번만 생각해야 한다.’는 程子の 說을 취해 공자가 계문자를 비난한 말로 풀었다.

⑥ 子曰 “師摯之始關雎之亂，洋洋乎盈耳哉!”(泰伯-15장.)

【古注】師摯，魯大師之名。始，猶首也。周道衰微，鄭衛之音作，正樂廢而失節。魯大師摯識關雎之聲，而首理其亂，有洋洋盈耳，聽而美之。

【朱注】師摯，魯樂師，名摯也。亂，樂之卒章也，史記曰“關雎之亂，以爲風始。”洋洋，美盛意。孔子自衛反魯而正樂，適師摯在官之初，故樂之美盛如此。

이 章은 고주와 신주가 해석이 완전히 다르다. 고주는 ‘始’를 首理로 訓解하여, ‘師摯之始關雎之亂’을 ‘師摯가 처음 關雎樂章의 어지러운 聲調를 다스리니’로 풀 반면, 신주는 ‘亂’을 樂之卒章으로 訓解하여, ‘樂師 摯가 樂師가 된 초기에 연주한 <관저>의 마지막 장’으로 풀었다.

⑦ 子曰 “譬如爲山，未成一簣，止，吾止也。譬如平地，雖覆一簣，進，吾往也。”(子罕-19장.)

【古注】此勸人進於道德。爲山者，其功雖已多，未成一簣而中道止者，我不以其前功多而善之，見其志不遂，故不與也。平地者，將進加功，雖始覆一簣，我不以其功少而薄之，據其欲進而與之。

【邢疏】此章孔子勸人進於道德也。‘譬如爲山 未成一簣 止 吾止也’者，簣，土籠也。言人之學道，垂成而止，前功雖多，吾不與也。譬如爲山者，其功雖已多，未成一簣而中道止者，我不以其前功多而善之，見其志不遂，故吾止而不與也。‘譬如平地 雖覆一簣 進 吾往也’者，言人進德脩業，功雖未多，而強學不息，則吾與之也。譬如平地者，將進加功，雖始覆一簣，我不以其功少而薄之，據其欲進，故吾則往而與之也。

【朱注】言 山成而但少一簣，其止者，吾自止耳。平地而方覆一簣，其進者，吾自往耳。蓋學者自強不息，則積少成多，中道而止，則前功盡棄。其止其往，皆在我而不在人也。

고주는 ‘吾’를 공자를 가리키는 말로 풀었고, 신주는 ‘吾’를 爲山者를 가리키는 말로 풀었다. 고주는 ‘譬如爲山 未成一簣 止’의 주체를 학자로, ‘吾止也’의 주체를 공자로 보았다. 또 ‘譬如平地 雖覆一簣 進’의 주체를 학자로, ‘吾往也’의 주체를 공자로 보았다. 즉, ‘비교하자면 산을 만드는데, 한 삼태기의 흙을 붓지 않아 산을 이루지 못하고서 중지하면 孔子[吾]도 그를 돕는 일을 중지하며, 地面을 평평하게 고르는데 한 삼태기의 흙을 막 부었으나 나아가서 그 일을 계속하면 공자도 가서 도와준다.’는 뜻으로 풀었는데, 신주는 ‘비교하자면 산을 만드는데 하지만 한 삼태기를 붓자 않아 산을 이루지 못하고 중하는 것도 스스로[吾] 중지하는 것이면 비교하면 평지 한 삼태기의 흙을 부었으나 나아가 그 일을 계속하는 것도 스스로 나아가서 그 일을 함이다.’로 해석하였다.

⑧ 棘子成曰“君子質而已矣，何以文爲？”子貢曰“惜乎！夫子之說君子也，駟不及舌。文猶質也，質猶文也。虎豹之鞬，猶犬羊之鞬。”(顏淵-8장.)

【古注】惜乎！夫子之說君子也，過言一出，駟馬追之不及。

【邢疏】‘子貢曰 惜乎 夫子之說君子也 駟不及舌’者，夫子指子成也。子貢聞子成言君子不以文爲，其言過謬，故歎曰“可惜乎。棘子成之說君子也。過言一出於舌，駟馬追之不及。”

【朱注】言子成之言，乃君子之意。然言出於舌，則駟馬不能追之，又惜其失言也。

新古注 모두 棘子成의 말을 옳지 않게 여긴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고주는 ‘夫子之說君子也’를 하나의 句로 보아 ‘夫子(棘子成)가 군자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는 뜻으로 풀었고, 주자는 ‘夫子之說，君子也’로 ‘부자(극자성)의 말은 군자답지만’으로 풀었다.

⑨ 子曰“南人有言曰‘人而無恒，不可以作巫醫.’善夫！”“不恒其德，或承之羞。”子曰“不占而已矣。”(子路-22장.)

【古注】言巫醫不能治無恒之人。

【邢疏】此章疾性行無恒之人也。‘子曰 南人有言曰 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者，

南人, 南國之人也. 巫主接神除邪, 醫主療病. 南國之人嘗有言曰 “人而性行無恒, 不可以爲巫醫” 言巫醫不能治無恒之人也.

【朱注】南人, 南國之人. 恒, 常久也. 巫所以交鬼神, 醫所以寄死生, 故雖賤役, 而尤不可以無常, …….

‘作’자의 풀이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고주는 ‘作’을 ‘治(치료하다)’의 뜻으로 풀어 ‘恒德이 없는 사람은 무당이나 의원도 치료해줄 수 없다.’고 해석하였고, 주자는 ‘作’을 ‘爲’의 뜻으로 풀어 ‘恒德이 없는 사람은 무당이나 의원도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⑩ 子曰: “知及之, 仁不能守之, 雖得之, 必失之. 知及之, 仁能守之, 不莊以蒞之, 則民不敬. 知及之, 仁能守之, 莊以蒞之, 動之以禮, 未善也.”(衛靈公-32 장.)

【古注】包曰 “知能及治其官, 而仁不能守, 雖得之, 必失之. 不嚴以臨之, 則民不敬從其上.” 王曰 “動必以禮然後善.”

【邢疏】正義曰: 此章論居官臨民之法也.

【朱注】知足以知此理, 而私欲間之, 則無以有之於身矣. 蒞, 臨也, 謂臨民也. 知此理而無私欲以間之, 則所知者在我而不失矣. 動之, 動民也, 猶曰鼓舞而作興之云爾.

이 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論語’에 ‘民’을 말한 곳은 대체로 政治를 논한 章이다. 이 章에도 ‘民’字가 보이니, 政治를 논한 것으로 푸는 것이 옳을 듯하다. 고주는 이 장을 政治를 논한 것으로 풀어, 11개의 ‘之’자 중에 위의 8개 ‘之’는 ‘官政’을 지시하는 대명사로, 아래의 3개의 ‘之’자는 ‘民’을 지시한 대명사로 풀었는데, 신주는 8개의 ‘之’는 ‘此理’로, 3개의 之는 민으로 풀었다. 朱子は ‘動之以禮’의 ‘動’자를 ‘鼓舞作興’으로 풀었으나, 《朱子語類》卷45에서 “‘動之以禮’의 ‘動’자는 感動의 動자가 아니라 바로 백성을 부리는 뜻이다.[動之以禮, 這動字, 不是感動之動, 是使民底意思.]”라고 하여 《集注》의 풀이와는 달리 古注와 같은 뜻으로 풀었다.

3. 결론

이상 古注와 新注 사이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두 주석 사이

의 차이 이전에 신주가 고주의 내용, 특히 訓詁·制度·名物 등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신주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주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신주 이해의 척도는 바로 고주의 이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論語注疏》는 현존하는 《논어》 주석 가운데 가장 오래된 何晏의 《論語集解》와 가장 합리적인 주석이라고 평가받는 邢昺의 《論語正義》를 합본한 책이다. 《集解》는 지금 전하지 않는 漢·唐·魏·晉代 학자들의 주석을 많이 보존하고 있어 그 가치를 더하며, 《正義》는 앞선 시대에 널리 유행한 皇侃의 《論語集解義疏》에서 번거로운 내용을 삭제하고 佛敎나 玄學적인 내용을 취하지 않았으며, 名物과 典章制度에 대한 설명이 매우 자세하여 고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孔子의 微言大義를 찾으려고 노력하여 訓詁學에서 義理學으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朱子の 《論語集注》는 주석이 가장 정밀하다고 평가되지만 주로 義理學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經文의 직접적인 해석과 이해에 필요한 名物·典章·制度 등에 대해서는 고주에 비해 매우 소략하다 할 수 있다. 주자의 주석은 경문의 표면적 이해보다 그 이면에 감춰진 義理를 들춰내려고 하였고, 또 경을 주석하면서자신의 철학체계를 세우려 하였기 때문에 명물 등에 대한 세세한 주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듯하다. 주자는 〈논어〉에 주석을 내면서 先學들의 說을 많이 採錄하였다. 그 중에서도 古注를 상당부분 수용하였으니, 명물 등 소략한 부분은 고주의 訓詁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논어집주》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논어주소》를 함께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明·清代에 이미 십삼경주소가 경학연구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일본은 이미 江戸時代に 反朱子學을 외치는 학자들이 일어나고 陽明學을 받아들인 학자들이 경학을 연구함으로써 주자학만을 존신하지 않았다. 또 明治維新 이후 古典整理 사업에 古注와 新注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학문의 균형을 꾀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자의 해석에만 傾倒되는 것을 止揚하고 새롭고 균형 있는 해석을 모색하기 위해 신주와 고주를 함께 살펴 보며 비판적 고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1. 何晏(魏) 集解, 邢昺(宋) 疏, 阮元(清) 校刊, 《論語注疏 附校勘記》, 清 嘉慶刊本, 영인본, 藝文印書館, 1997.
2. 朱熹(宋) 章句, 胡廣(明) 等 編, 《論語集注大全》, 조선 內閣本, 영인본, 학민문화사.
3. 鄭太鉉, 《譯註 論語注疏 1·2》, 傳統文化研究會, 2013-2014.
4. 李光虎 外, 《譯註 禮記正義-中庸·大學》, 傳統文化研究會, 2015.
5. 張伯潛, 《十三經概論》, 上海古籍出版社, 1983.
6. 《史記》·《漢書》, 中華書局二十四史點校本, 中華書局, 1997.

《大學》 《中庸》을 통하여 본 明善과 誠身의 삶

李光虎 (前 연세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 《대학》과 《중용》의 《예기》로부터의 독립
2. 《대학》과 《중용》의 관계
3. 明善과 誠身에 대한 이해
4. 유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5. 맺는말

1. 들어가는 말 - 《대학》과 《중용》의 《예기》로부터의 독립

《대학》과 《중용》이 현재는 독립된 책으로 각각 四書의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전한 중엽에는 戴聖이 편찬한 이른바 《소대예기》에 실려 있었다.

“前漢 중엽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儒者들이 저술한 禮說과 관련된 문헌들을 편집하여 戴德은 85篇의 《大戴禮記》를 편찬하였고, 戴聖은 49篇의 《小戴禮記》를 편찬하였다. 두 편저 가운데 《소대예기》가 《十三經》에 포함되어 계속 중시되었기 때문에 《대대예기》는 쇠퇴하여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禮記》라고 하면 《소대예기》를 일컫는다. 이 두 篇은 바로 이 《소대예기》에 수록된 篇으로서 전체 49편의 글 가운데 〈대학〉은 제 42편에, 〈중용〉은 제 31편에 해당한다.”(《예기정의-중용-대학》 〈해제〉)

“〈대학〉과 〈중용〉을 漢나라의 학자들은 특별히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唐나라의 李翱는 〈復性書〉를 지어 《中庸》의 중요성을 드러내었다. 宋나라의 王應麟이 편찬한 類書 《玉海》에 ‘宋 仁宗 天聖 5년(1027)에 새로 급제한 進士 王堯臣 등에게 〈중용〉 1軸을 하사하였다.’¹⁾는 기록과 ‘宋 仁宗 天聖 8년(1030)에 새로 급제한 進士 王拱辰에게 〈대학〉 1軸을 하사하였다.’²⁾는 기록이 있다. 또 이 기록을 살펴보면 天聖 8년 이후부터 새로 급제한 진사

1) 王應麟(宋), 《玉海》 卷34 〈聖文 御書 天聖賜進士中庸〉, “天聖五年 四月辛卯 賜進士王堯臣等聞喜宴于瓊林苑 中使賜御詩 又人賜御書中庸篇各一軸 自後遂以爲常”

2) 王應麟(宋), 《玉海》 卷34 〈聖文 御書 天聖賜進士大學篇〉, “天聖八年 四月丙戌 賜進士王拱辰宴于瓊林苑 遣中使賜御詩及大學篇各一軸 自後登第者 必賜儒行 或中庸大學篇”

들에게 반드시 <대학>, 또는 <중용>을 下賜하는 전례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宋 仁宗 이후부터 <대학>과 <중용>이 함께 중시되어 ‘學庸’의 틀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宋 仁宗 寶元 元年(1038)에 進士가 된 司馬光이 《中庸大學廣義》 1卷을 지은 것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禮記》에서 독립된 《중용》과는 달리 《대학》이 《예기》에서 독립한 것은 아마 宋 仁宗 때부터이고 《대학》에 주석한 것은 사마광부터일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마광이 지은 《중용대학광의》는 그 제목만 확인될 뿐,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사마광 이후 《대학》과 《중용》에 관한 많은 주석서가 나왔다. 특히 宋나라의 程顥·程頤 형제는 《대학》을 ‘孔子가 남긴 글로서 초학자가 德에 들어가는 門’³⁾이라고 하고, 《중용》을 ‘孔門의 傳授心法’⁴⁾이라고 하여 중시하였다.

그러나 程氏 형제는 모두 《대학》에 錯簡과 衍文이 있다고 보아 자신들의 철학체계에 맞게 저마다 《改定大學》을 만들었다.

朱熹도 기본적으로는 《대학》에 錯簡과 衍文이 있다고 한 정씨 형제의 견해를 받아들여 정씨 형제의 《改定大學》을 바탕으로 改定하여 《大學章句》를 지었다. 또 새로이 《中庸章句》를 지어 《大學》·《論語》·《孟子》와 함께 《四書》의 체재를 확립하고, 이 《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자제들을 가르침으로부터 《사서》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또 元代에 宋學을 숭봉하여 仁宗이 皇慶 연간에 주희의 《四書章句集注》를 과거시험의 기준이 되는 기본 원전으로 확정함에 따라 단행본으로 천하에 크게 유행하였다.

정호와 정이, 그리고 주희가 새로이 개정한 《대학》이 나옴으로써 개정하기 전의 《대학》을 《古本大學》이라고 하여 《개정대학》과 구분하였다. 또한 《개정대학》 이전, 특히 漢·唐代에 이루어진 주석을 ‘古注’라고 하고, 정호·정이와 주희의 주석을 ‘新注’라고 부른다. 본 譯書는 바로 개정되기 이전의 <대학>과 <중용>, 그리고 <대학>과 <중용>이 《예기》에서 분리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古注, 즉 漢나라 鄭玄의 注와 唐나라 孔穎達의 疏를 완역한 것이다.

주희가 《사서》의 체재를 확립함으로부터 王守仁(明) 계통을 제외하고는 中國과 朝鮮에서 程·朱, 특히 주희가 개정한 《대학》을 대체로 따른다. 韓國에서는 지금까지도 주희의 《대학장구》와 《중용장구》를 중심으로 읽고 교육해 왔으며, 또한 현재 출판된 번역서도 주희의 章句에 의거한 번역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經學의 기본은 《十三經》⁵⁾이며,

3) 楊時(宋) 訂定, 張栻(宋) 編次, 《河南程氏粹言》 卷1 〈論書篇〉, “子曰 大學 孔子之遺言也 學者由是而學 則不迷於入德之門也”

4) 朱熹(宋) 編, 《二程外書》 卷11 〈時氏本拾遺〉, “君子曰 伊川先生嘗言 中庸乃孔門傳授心法”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十三經注疏》를 참고해야 한다. 中國에서도 경학의 중심에는 《십삼경주소》가 있었으며, 朝鮮에서도 丙子胡亂 이후 주희의 章句에서 벗어나려는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도 《십삼경주소》가 있었다. 특히 조선에서는 무엇보다 《대학》과 《중용》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다.”(《예기정의-중용-대학》 〈해제〉)

2. 《대학》과 《중용》의 관계

송대의 유학자들은 당시의 주류 사상이던 불교와 도교로부터 유학을 독립시키고자 하였다. 불교와 도교보다 높은 수준의 학문으로 유학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하여 선왕들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六經 중심의 유학으로부터 공자 이후의 유학자들의 학문과 삶을 중심으로 하는 四書의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들은 사서를 통하여 공자와 증자와 자사와 맹자로 이어지는 도통관을 확립하고 학문을 하는 순서에 따라 《대학》과 《논어》와 《맹자》와 《중용》으로 순서를 정하였다.

六經 시대의 유학은 치인을 중심으로 하지만 성리학은 치인의 전제가 되는 수기를 더욱 중시하여 인간의 수양과 자기완성을 통한 성인이 되는 학문을 더욱 중시하였다. 성리학의 이와 같은 특성은 현실에 대한 인식능력과 객관적 법칙에 대한 인식문제에서 약점을 드러내어 근세 실학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인문학이 위기에 처하고 기술문명 앞에 왜소하게 된 인간위기의 상황은 성리학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대학》과 《중용》은 사서의 처음과 끝을 이루지만 이 두 책의 내용은 상호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의 상호 관계에 관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역시 사서를 편집한 성리학자들이었다. 《대학》을 읽는 방법을 설명한 〈독대학법〉과 《중용》을 읽는 방법을 설명한 〈독중용법〉에서 우선 이 두 책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2.1. 《대학》과 《중용》의 다른 점

朱子が 말하였다. “《論語》·《孟子》는 일에 따라 문답하여 要領을 보기 어

5) 《十三經》은 儒家의 중요한 經典으로 《周易》·《尚書》·《毛詩》·《周禮》·《儀禮》·《禮記》·《春秋左傳》·《春秋公羊傳》·《春秋穀梁傳》·《論語》·《孝經》·《爾雅》·《孟子》이다. 唐代에 《五經正義》가 편찬됨으로부터 점차 확대되어 南宋代에 마지막으로 《맹자》가 經의 지위를 획득하여 추가됨으로써 《십삼경》이 확정되었다.

럽다. 그러나 《大學》만은 曾子가 孔子가 옛 사람들이 학문하는 큰 방법을 말한 것을 서술하고, 〈증자의〉 門人들이 또 전수받아 서술하여 그 要旨를 밝혔기 때문에, 앞뒤가 서로 연관되고 전체의 체계[體統]가 모두 갖춰졌다. 이 책을 翫味하여 옛 사람들이 학문함에 향한 곳을 알고 나서 《논어》·《맹자》를 읽으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앞으로의 공부가 비록 많으나 〈학문의〉 大體가 이미 설 것이다.”

“《大學》은 학문하는 綱領과 條目이다. 먼저 《대학》을 읽고 綱領을 확실하게 정해 놓으면, 다른 책들은 모두 그 〈강령〉 안에서 다양하게 말한 것이 된다. 《대학》을 두루 깨닫고 나서, 다른 경전을 보아야 이것이 格物·致知의 일이며, 이것이 誠意·正心の 일이며, 이것이 修身的 일이며, 이것이 齊家·治國·平天下의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말하였다. “나는 일생동안 이 문자를 보는 데에 투철하여 예전의 현인들이 이르지 못한 곳을 보게 되었다.” 溫公(1019-1086: 宋 陝州 夏縣人. 姓은 司馬, 名은 光, 字는 君實, 號는 迂夫·迂叟·涑水, 諡號는 文正. 溫國公에 추증되어 司馬 溫公이라고 한다.)이 《資治通鑑》을 짓고 ‘평생의 정력을 이 책에 다 쏟았다.’고 하였는데, 나도 《大學》에 대해서 그렇다.” “먼저 이 책을 통달해야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다.”

《대학》이 초학자들이 덕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데 반하여 《중용》은 초학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을 한다.

“《中庸》은 초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책을 읽는 순서는 우선 힘써 《大學》을 보고, 또 힘써 《論語》를 보고, 또 힘써 《孟子》를 보아야 한다. 세 가지 책을 다 보게 되면 이 《中庸》의 절반이 모두 끝난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고 조금씩 것처럼 봐나가야 할 뿐이다. 쉬운 것을 버리고 도리어 저 어려운 것을 먼저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 《중용》은 형체와 그림자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 많아 下學處(人事)를 말한 것은 적고 上達處(天理)를 말한 것은 많다. 우선 글의 뜻을 理會하면 될 것이다.”

유학은 유교라고도 칭한다. 어떤 이는 유학이라고 하면 학문이고 유교라고 하면 종교를 의미하는데 유교는 종교가 아니므로 유학이라는 칭호가 정당하다고 한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유학은 교학사상, 즉 배우고 가르침을 함께 하는 사상이다. 학문을 통하여 배우는 입장에서는 유학이 되고 정치의 입장에서 가르치고 교화한다는 의미에서는 유교라고 부르게 된다. 유학이나 유교의 실체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책의 제목대로 ‘學’이 강조되고 있고, 《중용》에서는 “修道之謂教”라고 하여 ‘教’가 강조되고 있다. 《대학》이 학자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다면 《중용》은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므로 공통점이 매우 많다.

2.2. 《대학》과 《중용》의 공통점

〈讀中庸法〉에서도 이미 이 두 책의 유사한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中庸》·《大學》의 구별에 대해 물었다.

말하였다. “《중용》을 읽고서 義理를 찾는 것 같은 것은 다만 〈《대학》의〉 앎을 극진하게 하는 공부요, 〈자기〉 혼자만 아는 마음의 자리를 삼감(謹獨)과 수양하고 반성함 같은 것은 또한 다만 〈《대학》의〉 뜻을 성실하게 하는 공부이다.”

물었다. “《중용》만은 그야말로 ‘성스러워 알 수 없다.’는 경지를 말하였습니까.” 말하였다. “《대학》 안에서도 ‘前代의 왕을 잊지 못한다.’와 같은 것은 〈《중용》의〉 ‘독실하고 공경스럽게 하면 천하가 공평하게 다스려진다.’는 일이다.”

《대학》이 팔조목을 통하여 수기와 치인을 함께 포괄하고 있다면 《중용》은 구경을 통하여 수기와 치인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 ‘명덕’으로 시작되고, 《중용》에서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고 하여 인간의 본성을 시작으로 삼는다. 명덕과 본성은 표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내용은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주희는 「대학장구서」에서는 본성을 중심으로 삼아 《대학》을 설명하고 「중용장구서」에서는 마음을 중심으로 《중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학》과 《중용》에는 공통된 내용이 많아 상호 유기적으로 이해하면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明善’과 ‘誠身’이다.

3. 明善과 誠身에 대한 이해

유학은 도를 진리로 추구하는 학문이므로 당연히 도의 인식과 실천을 중심으로 학문을 전개한다. 도는 인간의 마땅한 삶의 길로서 《대학》에서는 ‘지선’으로 칭한다. 《중용》에서는 ‘道’라는 용어를 바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中庸’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道라는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하늘이 명한 본성에 따르는 행위는 마땅한 삶의 길이라는 의미에서는 道라고 칭하지만, 가장 알맞아 마음에 흡족하다는 의미에서는 道이라고 하며, ‘不偏不倚’하며 ‘無過不及’하다는 의미에서는 中庸이라고 일컫는다. 至善과 中庸이 가르키는 내용이 별개의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대학》과 《중용》은 지선과 중용을 지향한 지행의 노력의 과정이다. 초학의 문에 들어선 자와 학문이 성숙된 자의 수준은 다르지만 유학에서 학문을 통하여 인간완성으로 나가는 데는 지행을 병진하며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행의 목표는 당연히 도와 선과 중용이다. 도와 선과 중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함을 꾸준히 쌓아 선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심화시킴에 의하여 이를 자득하는 것이 지행의 학문인 유학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용》에서는 도와 지선과 중용의 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구사되고 있지만 오히려 실천에 대해서는 ‘篤行’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앎을 극진하게 하는 것은 사물에 나가서 도리를 궁구함에 있다(致知在格物).”라고만 하고, 誠意와 正心과 修身이라는 行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중용》과 《대학》의 강조점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明善, 誠身과 관련이 있는 《대학》과 《중용》의 내용을 비교하며 살펴보면 유학이 어떤 학문인가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3.1. 《대학》의 ‘格物致知-誠意, 正心, 修身’과 《중용》의 ‘明善, 誠身’ 및 ‘擇善, 固執’

《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는 격물치지이며, 《중용》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는 誠이다. 격물치지는 선을 밝히는 공부이면서 《대학》에서 성의, 정심, 수신의 전제가 되고 있다. 《중용》은 성을 주제로 하면서 한편 그 전제로 선에 대한 밝은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삼강령에서는 ‘명덕을 밝히는 것’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 ‘지선에 머무는 것’을 설명하고 팔조목에서는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

라를 다스리려는 자는 그 집안을 먼저 가지런하게 하고, 그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 몸을 닦고, 몸을 닦으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뜻을 진실하게 하고, 뜻을 진실하게 하려는 자는 자신의 지혜를 극진하게 해야 하며 지혜를 극진하게 하는 것은 물에 나가서 선을 밝힘에 있다.(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라고 한다. 유학의 물음은 어떤 사실을 사실로 파악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사실세계를 수용하여 자신의 삶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실천하는 마땅한 삶의 길인가를 묻는 물음에서 유학은 시작된다. 바로 선에 대한 물음과 답을 얻어 이를 실천하는 것이 유학이라는 것이다.

“아버이에게 사랑을 받음에 방법이 있으니 자신에게 돌이켜보아 성실하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신을 성실하게 함에 방법이 있으니 후에 밝지 않으면 자신에게 성실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順乎親이 有道하니 反諸身不誠이면 不順乎親矣리라 誠身이 有道하니 不明乎善이면 不誠乎身矣리라)

《대학》이 선의 인식과 실천을 목표로 한다면 《중용》도 자신의 진실한 삶을 성취하려는 자는 선을 먼저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誠은 하늘의 道요, 성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道이다. 〈천생적으로〉 誠에 이른 자는 힘쓰지 않고서도 맞으며, 생각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道에 맞으니, 聖人이다. 誠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善을 선택하여 굳게 잡아 지키는 자이다.(誠者는 天之道也요 誠之者는 人之道也니 誠者는 不勉而中하며 不思而得하여 從容中道하니 聖人也요 誠之者는 擇善而固執之者也니라)”

여기서는 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진실한 삶을 성취함으로써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학문은 선을 잘 선택하여 굳게 잡아 실천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3.2. 《대학》의 ‘格物致知--誠意, 正心, 修身’과 《중용》의 ‘博學, 審問, 慎思, 明辯--篤行’

《대학》이 격물치지와 성의, 정심, 수신으로 지와 행을 나눈 반면 《중용》의 “널리 배우며, 자세하게 물으며, 신중하게 생각하며, 분명하게 변별하며, 철저하게 행해야 한다.(博學之하며 審問之하며 愼思之하며 明辨之하며 篤行之니라)”에서는 ‘박학, 심문, 신사, 명변’을 지로, 독행을 ‘행’으로 나누고 있다. 《대학》에서는 ‘행’이 자세한데 《중용》에는 ‘知’가 자세하다.

3.3. 《대학》의 ‘知行’과 《중용》의 “生而知之, 學而知之, 困而知之”와 “安而行之, 利而行之, 勉強而行之”

《대학》에서는 지와 행이 격물치지와 성의 정심 수신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중용》에서는 지와 행을 각각 세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태어나면서 〈저절로〉 알기도 하며, 배워서 알기도 하며, 애써 노력하여 알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앎에 미쳐서는 한 가지이다. 편안하게 행하기도 하며, 이롭게 여겨 행하기도 하며, 힘써 노력하여 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공을 이롭게 미쳐서는 한 가지이다.”(或生而知之하며 或學而知之하며 或困而知之하나니 及其知之하여는 一也니라 或安而行之하며 或利而行之하며 或勉強而行之하나니 及其成功하여는 一也니라)

도달되는 경지가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도와 선과 중용을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와 선과 중용은 본성에 대한 온전한 앎과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3.4. 《대학》의 “知止, 有定, 能靜, 能安, 能慮 能得”과 《중용》의 “致曲-誠-形-著-明-動-化”

《대학》에서는 “머물러야 할 곳을 안 뒤에〈방향이〉 정해짐이 있으니, 정해진 뒤에야 〈마음이〉 차분할 수 있으며, 차분해진 뒤에야 〈처한 곳에〉 편안할 수 있으며, 편안해진 뒤에야 〈일의 처리를〉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한 뒤에야 〈머물 곳을〉 얻을 수 있다.(知止而後에 有定이니 定而後에 能靜하며 靜而後에 能安하며 安而後에 能慮하며 慮而後에 能得이니라)”고 한다. 지전을 알고부터 지전을 자득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중용》 23장에서는 “그 다음 사람은 한쪽 구석을 극진하게 한다. 한쪽 구석을 극진하게 하면 성실해질 수 있다. 성실해지면 내면에 쌓인 것이 겉으로 나타나고, 나타나면 뚜렷

하게 드러나고, 드러나면 밝게 퍼져 나가고, 밝게 퍼져 나가면 〈相對를〉 감동시키고, 〈상대
가〉 감동하면 달라지고, 달라지면 바뀐다. 오직 천하의 지극히 성실한 사람만이 〈상대를〉
바뀌게 할 수 있다.(其次는 致曲이니 曲能有誠이니 誠則形하고 形則著하고 著則明하고 明
則動하고 動則變하고 變則化니 唯天下至誠이아 爲能化니라)”라고 한다. 자신의 선한 마음
을 밝혀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3.5. 《대학》의 ‘明明德’, ‘格物致知’와 《중용》의 ‘尊德性’과 ‘道問學’

《대학》에서는 삼강령에서 ‘明明德’을 말하고 팔조목의 시작에서 격물치지를 말하고 있
다. 격물치지는 명명덕을 이루는 공부의 단초를 이룬다. 그러나 《중용》에서는 덕성을 함
양하는 공부와 도문학 공부가 서로 대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君子는 德性を 높이되 學問을 바탕으로 한다. 광대함을 이루되 정
미함을 다하며, 高明을 극진하게 하되 中庸을 바탕으로 하며, 옛 것을 익히되 새
로운 것을 알며, 질박하고 성실함(厚)을 돈독하게 하면서 禮를 높인다.(故로 君
子는 尊德性而道問學이니 致廣大而盡精微하며 極高明而道中庸하며 溫故而知新
하며 敦厚以崇禮니라)”

《대학》의 공부는 삶과 학문에서 시작되어 마음이 미발인 상태의 공부방법에 대한 설
명은 없다. 미발일 때의 공부는 《중용》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희로애락이 발현되
기 이전을 中이라 한다.”라고 말하고 “중을 천하 모든 일의 대본이다.”라는 설명은 《중용
》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덕성을 높인다는 것은 미발과 이발을 포괄하여
인간의 본성을 함양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3.6. 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중용》 21장에서는 誠으로부터 밝은 것은 온전한 본성에서 지혜가 자연스럽게 발현되
는 성인의 삶을 의미하며 밝은 지혜를 얻음으로부터 진실한 삶에 도달하는 것은 교육과 학
문을 통하여 도달하는 경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진실하면 밝게 되고, 밝
게 되면 진실하게 된다고 하여 밝음과 진실함은 인간 본성의 양면성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
다.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실현함을 통하여 도와 선과 중용을 실천하는

인간 완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유학의 정체성을 찾아서

현대학문의 주류는 과학으로 사실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유학의 주류는 도덕학으로 至善과 中庸의 인식과 실천을 통하여 삶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삶의 완성을 통하여 자연의 진리인 誠에 도달함으로써 자연과 합일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은 수기와 치인을 설명하는 데 자세하지만, 《중용》은 수신을 통하여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경지가 자연과 합일의 경지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자세하다. 21장 이후의 내용은 학문을 통하여 誠에 도달한 성인의 경지는 자연과 합일의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진실무망(誠)으로부터 (저절로) 밝은 것을 性이라고 하며, 밝게 함(明)으로부터 진실무망한(誠) 것을 教라고 한다. 진실무망하면 밝게 되고, 밝게 되면 진실무망하게 된다.”

진실무망함과 밝음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인간 본성의 근원인 하늘은 당연히 진실무망하면서 밝은 인식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유학의 敬天愛人 사상은 《대학》과 《중용》의 명선과 성신의 학문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명선과 성신의 학문을 통하여 至誠에 도달한 사람은 진실무망하고 밝은 자신의 본성을 다하게 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본성과 만물의 본성을 다 알게 되어 천지의 조화와 발육을 도울 수 있게 되니 천지와 더불어 자연의 창조에 참여하는 천지인 三才의 자격이 있는 인간이 된다.”

성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을 완성하여 남도 완성할 수 있다고 할 뿐 아니라, 고명한 하늘, 광대한 대지와 덕성이 합치함을 칭송하고 있다. 현대 과학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중용》의 이와 같은 말을 아무도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무망을 지향하는 유학의 경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이전의 학자들은 “성인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을 가지고 후학들을 가르쳤지만, 그것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자는 거의 없었다. 요즘의 학자들은 믿지도 않으니 어떻게 깊고 먼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과학이 객관적 법칙을 진리로 보는데 반하여 유학은 하늘 또는 태극이라는 존재의 근원이며 가치의 근원을 진리로 여긴다. 사실과 사실세계의 법칙을 추구하는 과학과 그리고 지선과 지선의 근원으로서의 이법을 추구하며 선한 삶을 추구하는 유학은 추구하는 바가 매우 다르다. 유학의 진리인 도와 과학적 진리와 법칙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의 과학은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자연의 물리적 성격을 밝혀 현대의 발전된 물질문명을 성취하였다. 그러나 과학의 객관적이고 물리적 이해만으로 인간의 주체성과 관련된 도덕과 윤리, 가치의 문제에 대한 회답을 찾을 수 없다. 유학은 자연의 객관적 법칙을 밝히는 학문을 정립하지 못하였지만 반면 인간의 주체적 도덕적 삶을 밝혀 인간의 가치적 질적 삶을 완성하는 데는 정밀함을 극진하게 하였다. 동양은 과거 백 년 동안 서구의 객관적 학문인 과학을 배워 서구문화를 상당한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는 과학과 유학을 따로 구별하여 인식하면서도 통합의 방법과 원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현대를 살며 유학을 이해하는 사람의 역사적 책임이다.

과학과 유학은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도 크게 다르다. 《대학》과 《중용》을 펼쳐보라. 《대학》의 첫머리에는 ‘明德’과 ‘止於至善’이 나오고 《중용》의 제1장에는 ‘天命’과 ‘道’가 나온다. 과학이 객관적 세계에 대한 법칙을 아는 것을 문제로 설정하였다면 유학은 주체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된 문제로 설정하였다. 객관 세계와 주체의 세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사물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방법과 얻는 답은 다를 수 있다. 과학은 많은 과학자를 양성하고 과학문명을 탄생하였다면 유학은 많은 성인과 현인을 배출하여 도덕문명을 형성하였다. 과학만으로 인간의 주체적 정신과 가치적 삶을 이해할 수 없듯이 도덕만으로 인간이 이상적 삶을 살 수도 없다. 이 두 학문은 상호보완적이어야만 한다. 유학은 신분제 사회를 기초로 사대부는 유학을 하고 농·공·상을 통하여 객관적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신분제 사회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과학적 객관적 인식과 유학의 주체적 도덕적 인식은 통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학의 정체성이 먼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대학》과 《중용》이 공자 이후 춘추 전국시대를 통하여 제자백가가 자신의 학설을 전개하는 가운데 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저술된 책으로 본다. 송대의 성리학자들은 불교와 도교가 번성한 시학을 구별하면서도 통합과 융합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또 다시 《대학》과 《중용》을 통하여 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학》과 《중용》에 공통으로 나오는 선을 밝히는 ‘明

善'과 '자신의 삶을 진실되게 하는 '誠身'의 문제를 통하여 유학의 정체성을 세우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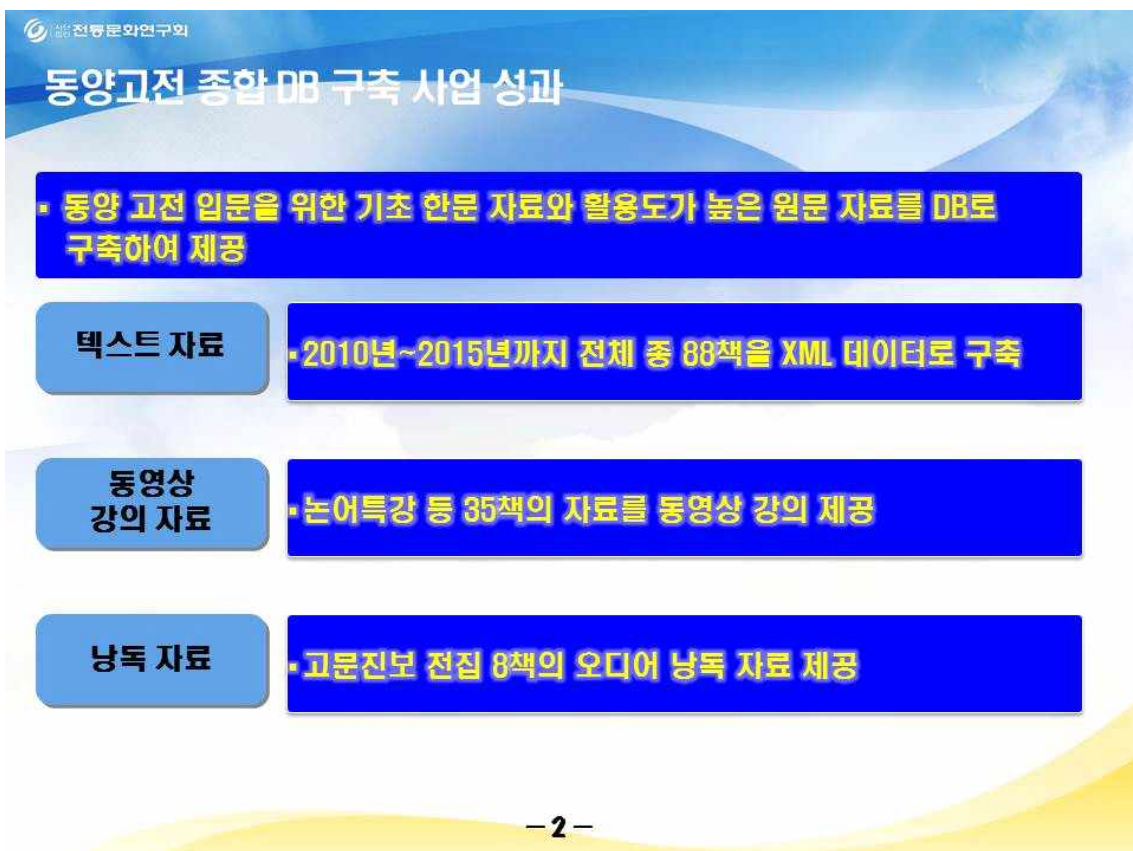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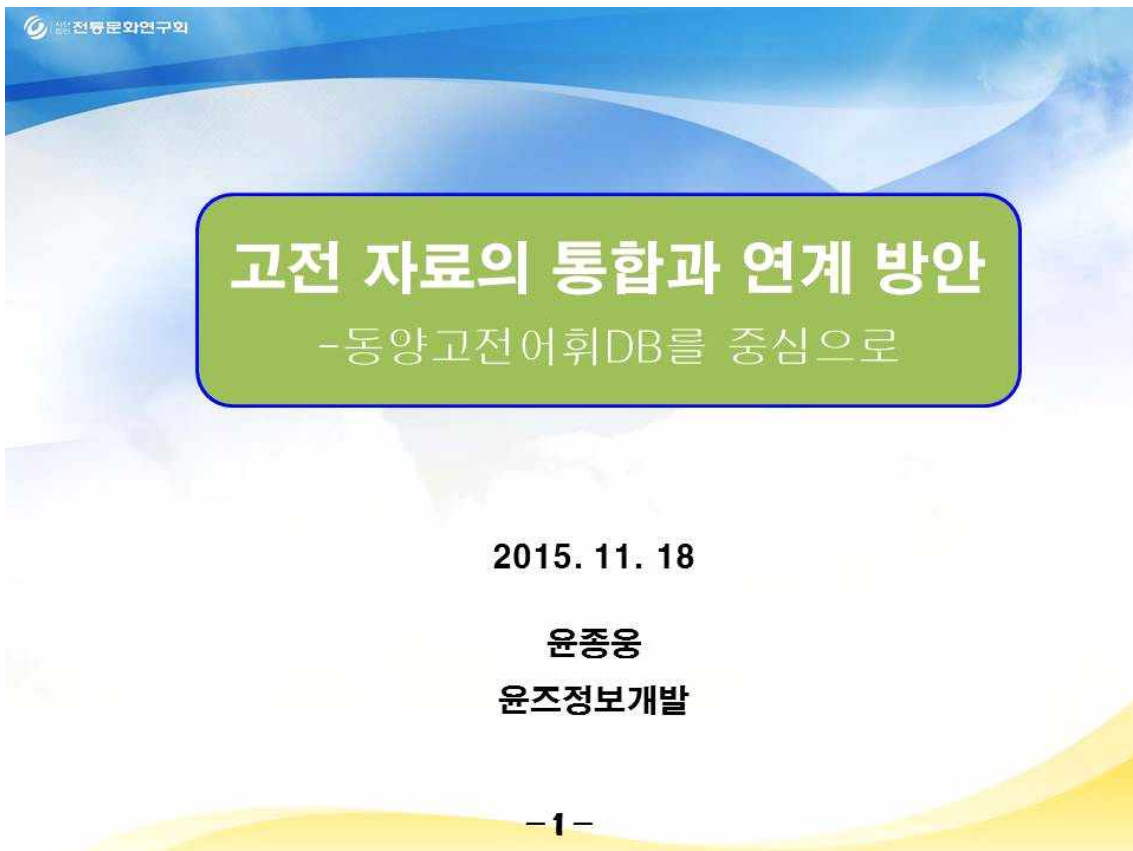
과학이나 유학이나 학문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인식을 전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학문이라는 말에는 선생과 학생,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인간 삶의 보편적 양식이 전제되고 있다. 먼저 알고 먼저 행한 사람이 앞에서 가르치면 뒤에 따라 가는 사람이 배우고 묻는 가운데 자신도 알게 되어 자신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얕이 명확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으며 배우는 자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따라서 행할 수 없다. 《대학》에 나오는 '明明德'의 '明明'과 《중용》에 나오는 "밝음으로부터 진실하게 하는 것을 교라고 한다(自明誠謂之教)"의 '明'은 모두 사람의 인식을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알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조금 아는 것으로 자연의 깊은 비밀에 도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조금씩 알고 실천하며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만 무한히 깊고 넓은 자연의 비밀에 조금씩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말

《대학》은 사서의 시작을 이루고 《중용》은 사서의 끝을 장식하고 있다. 성리학자들에 의하면 유학사상의 처음과 끝을 각기 이루고 있다. 발표자는 이 두 책을 함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번 발표문에서는 '明善'과 '誠身'이라는 유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 책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주자는 〈중용장구서〉에서 《중용》의 '擇善'과 '固執'을 《서경·대우모》의 '惟精' '惟一'과 연결시키고, 《중용》의 '君子時中'을 《서경·대우모》의 '允執厥中'과 연결 짓고 있다. 유학의 이상인 중용을 실천하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은 결국은 명선과 성신이라는 설명이다. 선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간에게는 본성이 있어 대부분의 인간이 확실하게는 몰라도 선을 어렵뜻하게는 알고 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어렵뜻하게 누구나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 문화와 정치를 통하여 이러한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선의 인식과 교육을 위하여 힘쓰는 시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살고 있지만, 한편 과학의 반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는 《대학》과 《중용》에 대한 상보적 이해를 통하여 과학과는 전혀 다른 학문의 세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한 삶, 도덕적 삶을 통하여 인간의 자기완성을 성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심화된 인식에 도달하여 모든 생명의 화육을 도우는 것이 《대학》과 《중용》이 지향하는 학문과 삶의 세계이다. 선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물질

적 세계와는 反面을 이루는 마음의 세계와 주체의 세계에 대한 무한한 이해의 길을 열어준다. 자연의 진리와 주인은 보이는 물질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이며 보이는 법칙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창조적 이법의 세계라는 것이 과거 현인과 철인들의 가르침이다. 자연과의 조화와 화해를 지향하는 유학을 좀 더 철저하게 인식하고 체득하는 것이 과학이 파생하는 위기를 돌파하고 희망적 인류사회의 삶의 길을 여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적 인식의 세계와 과학이 성취한 문화가 너무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객관세계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체를 중심으로 삼는 학문이 미약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명선과 성신이라는 지와 행을 통하여 도달하는 세계는 깊고 넓은 무한의 세계라는 것을 《대학》과 《중용》 더 나아가 모든 유학의 경전이 설명하고 있다. 《중용》에서는 이를 “淵淵其淵, 浩浩其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전문자료연구지원

동양고전 종합 DB 구축 사업 성과

구축연도	자료량	구축 서종
2010	10	예기대전, 춘추좌씨전(1) 등
2011	10	논어집주, 맹자집주, 춘추좌씨전(2), 통감절요(1) 등
2012	18	주역전의, 서경집전, 시경집전, 춘추좌씨전(3~4), 통감절요(2) 등
2013	20	춘추좌씨전(5-8), 통감절요(3~6) 등
2014	9	논어주소(1), 통감절요(7~9)
2015	21	주역정의, 상서정의, 전국책, 순문자직해, 육도직해, 삼략직해, 오자직해, 사마법직해 등
총합계	88	

-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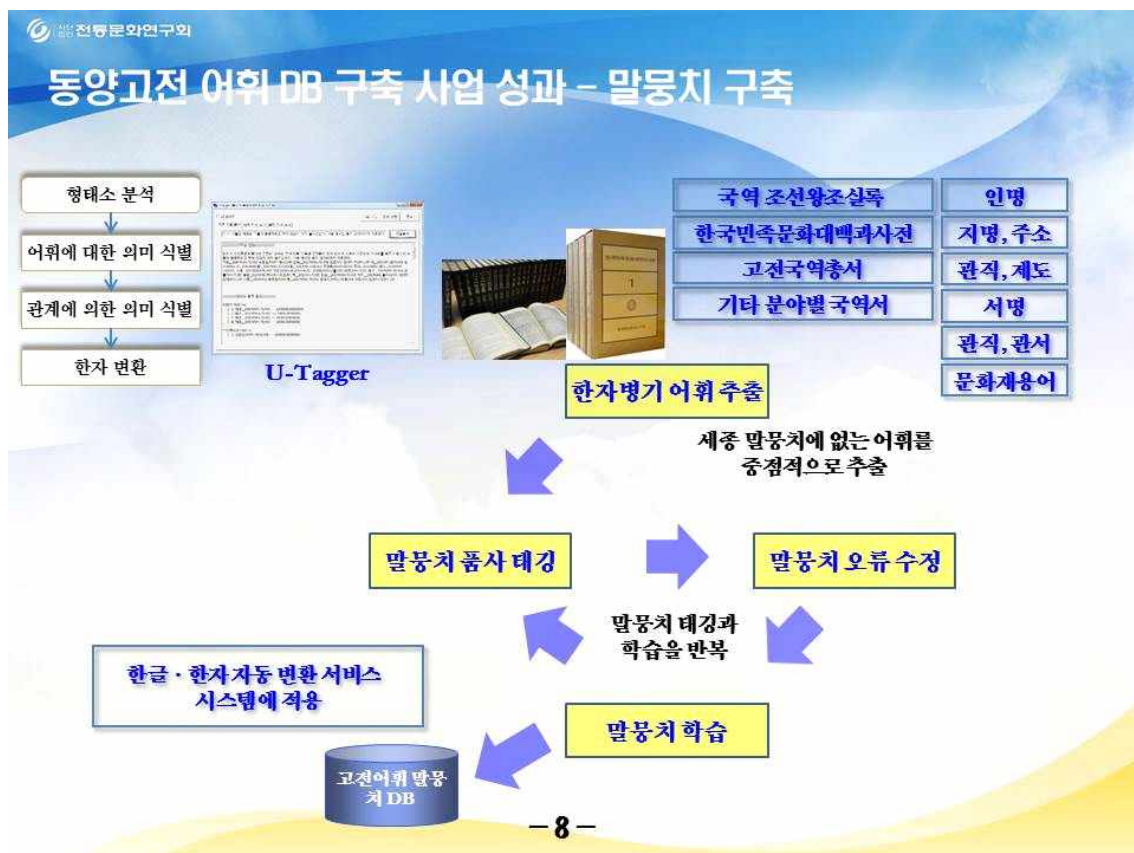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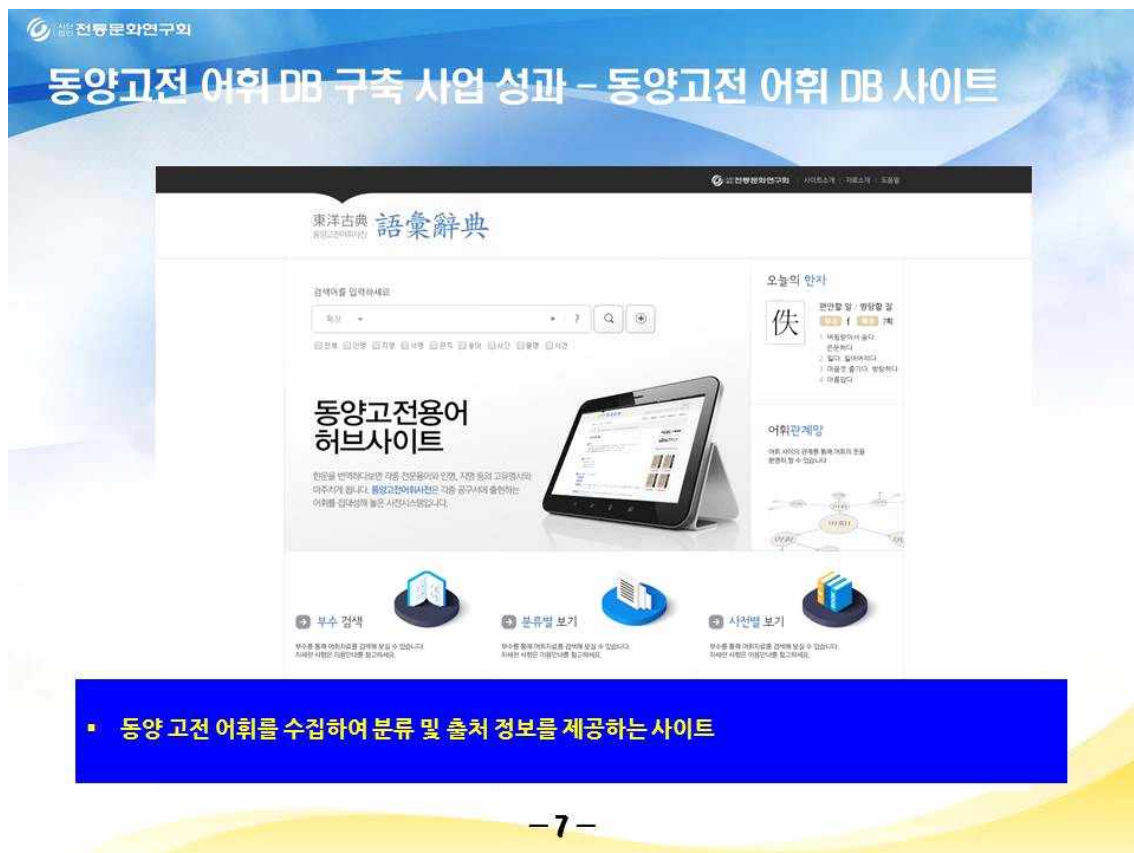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전문자료연구지원

동양고전 어휘 DB 구축 사업 성과

고전 어휘를 수집하여 고전 학습과 翻譯 지원을 위한 동양 고전 어휘 db 및 어휘 정보 연계 허브 사이트 구축을 목표로 함

어휘 수집	- 동양 고전과 관련하여 각종 표제어를 수집 - 한한대사전, 한어대사전, 한국역대인물대사전 등 각종 사전의 표제어 수집 - 총 1,278,473어휘 수집
어휘 관계 정리	- 인물 정보를 중심으로 인명 이칭, 관련된 지명, 가족 관계 등의 관계 정보를 정리 - 총 169,238어휘 정리
말뭉치 구축	- 국역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전 국역서의 한자 어휘를 중심으로 형태 의미 분석 - 인명, 지명, 서명, 주소, 문화재 명칭 등 고유명사를 중심으로 말뭉치 분석 - 총 3,054,179어절 분석

- 4 -



동양고전 어휘 DB 구축 사업의 추진 필요성

- 동양 고전과 관련된 각종 사전 자료가 각 기관에 산재해 있으나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활용 방안이 요구됨
- 의미적 추론에 의한 지능형 검색이 타 분야에서 추진되나 고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임
- 대개 번역 성과물의 단순 정보화 및 어휘의 제한적 정리에 그치고 있음
- 한국고전 및 동양고전 번역 성과물의 활용성 향상을 위해 어휘 정리, 번역 용례 정리 등 어휘정보의 체계화가 필요
- 본문 중에 사용된 어려운 용어와 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자료를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함
- 현대 어휘의 워드넷은 KAIST(CoreNet), 부산대학교(U-Win), 울산대학교(KorLex 1.5) 등의 어휘 의미망이 개발되었으나 고전 어휘는 전무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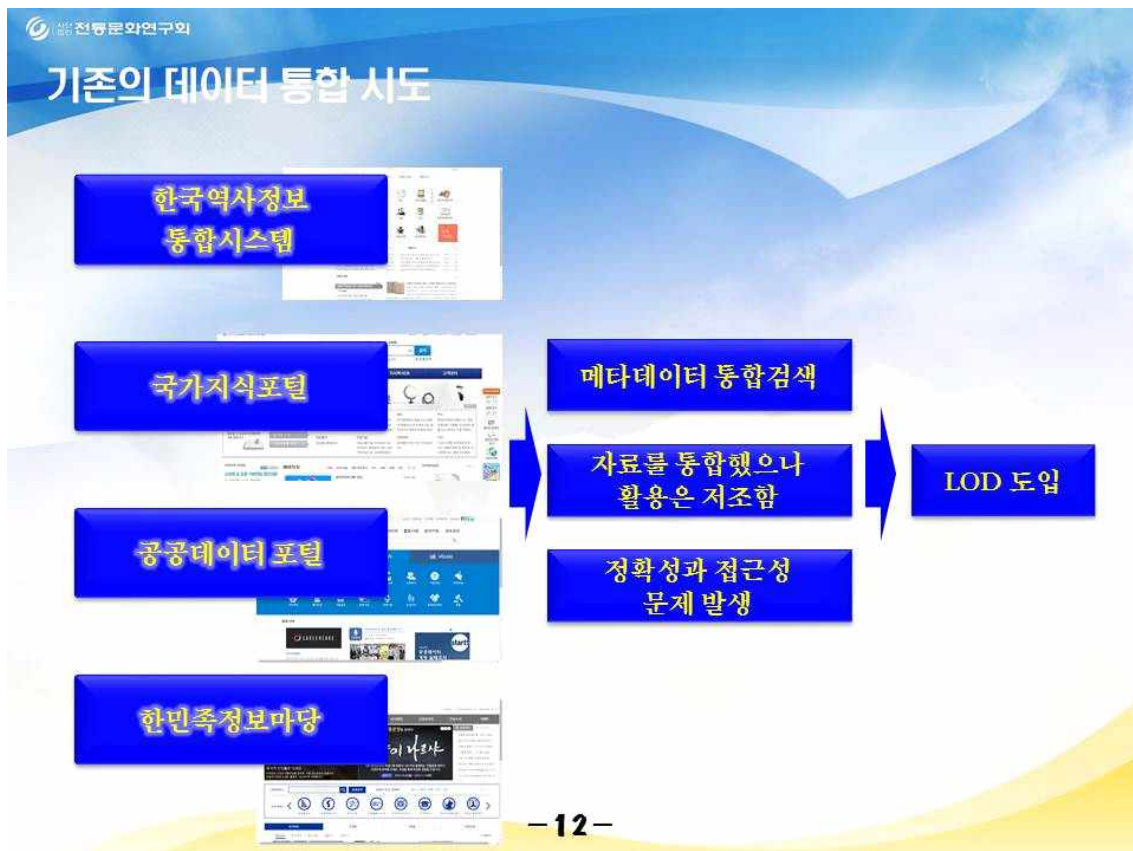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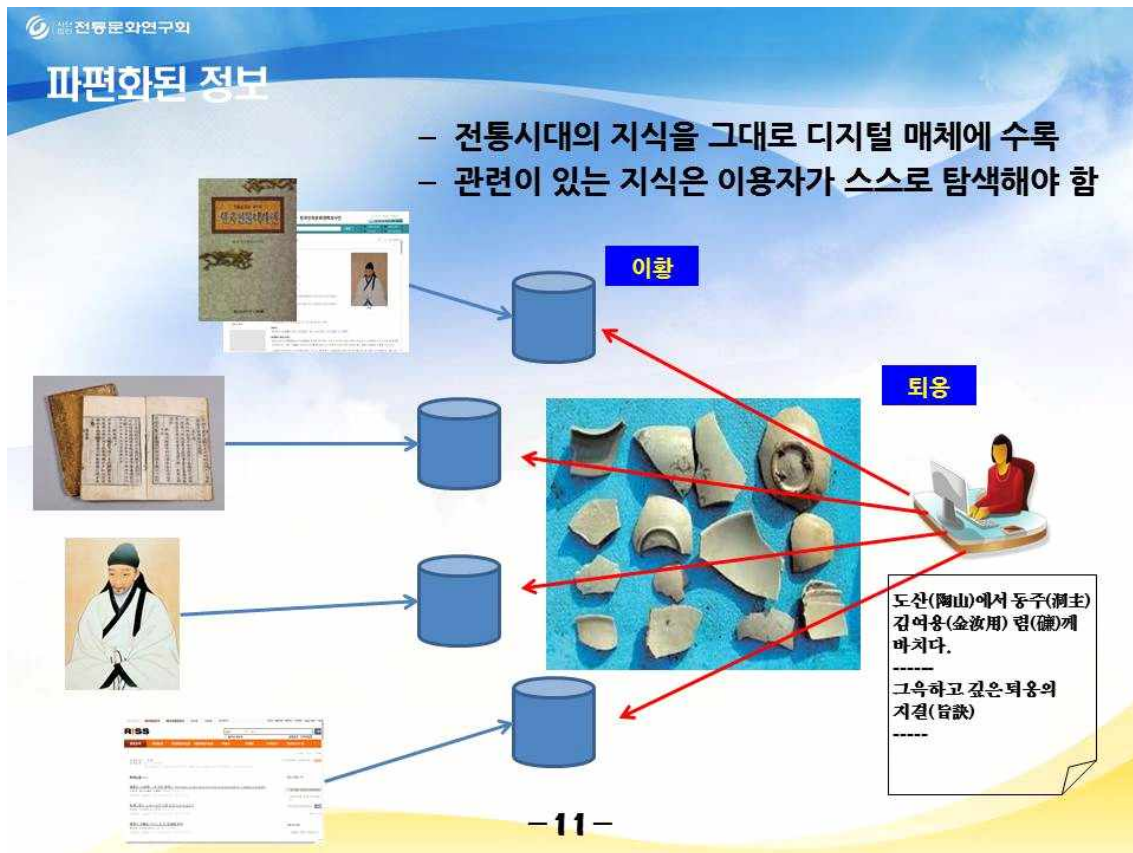
-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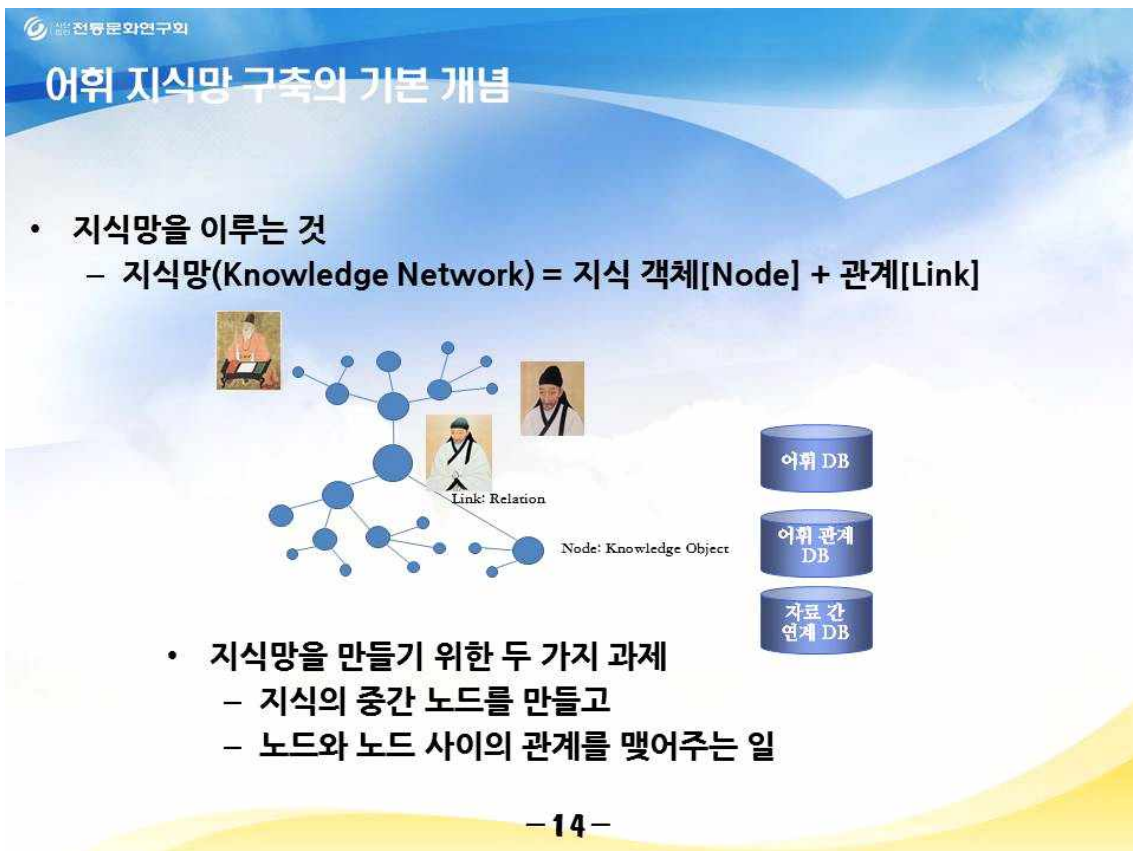
정보의 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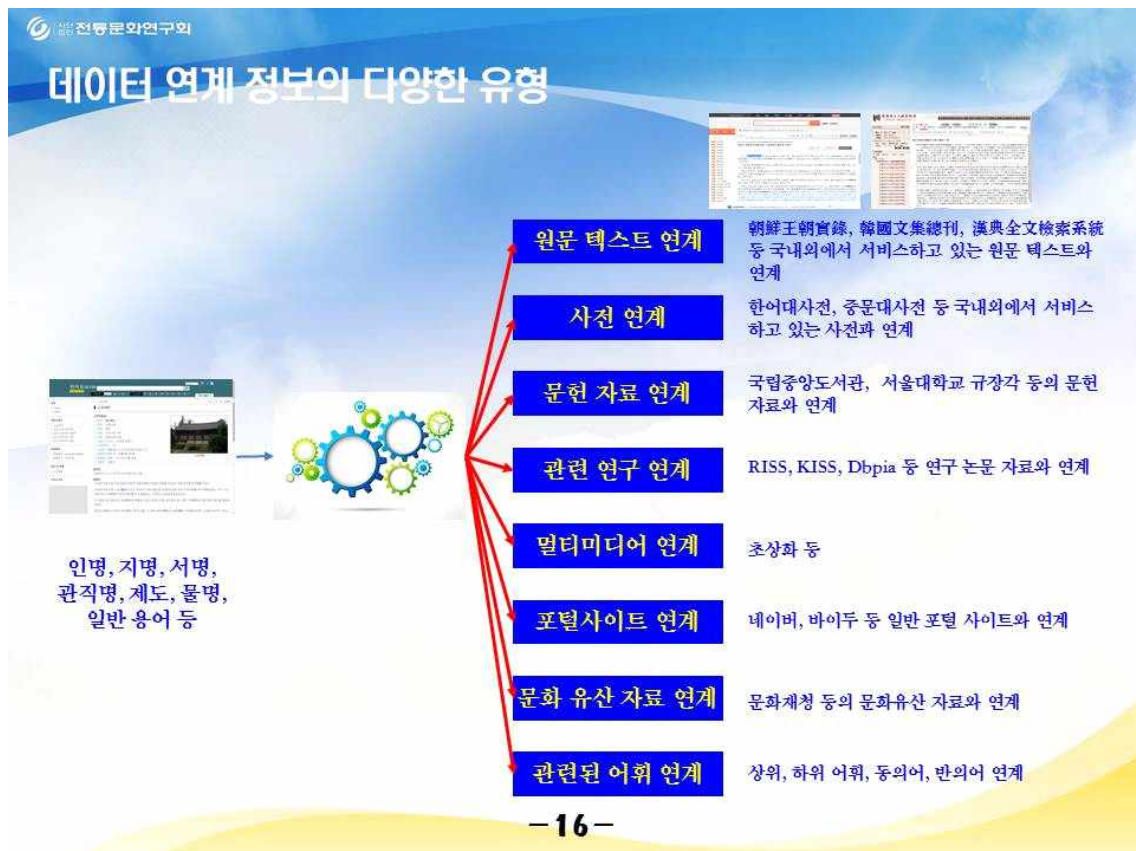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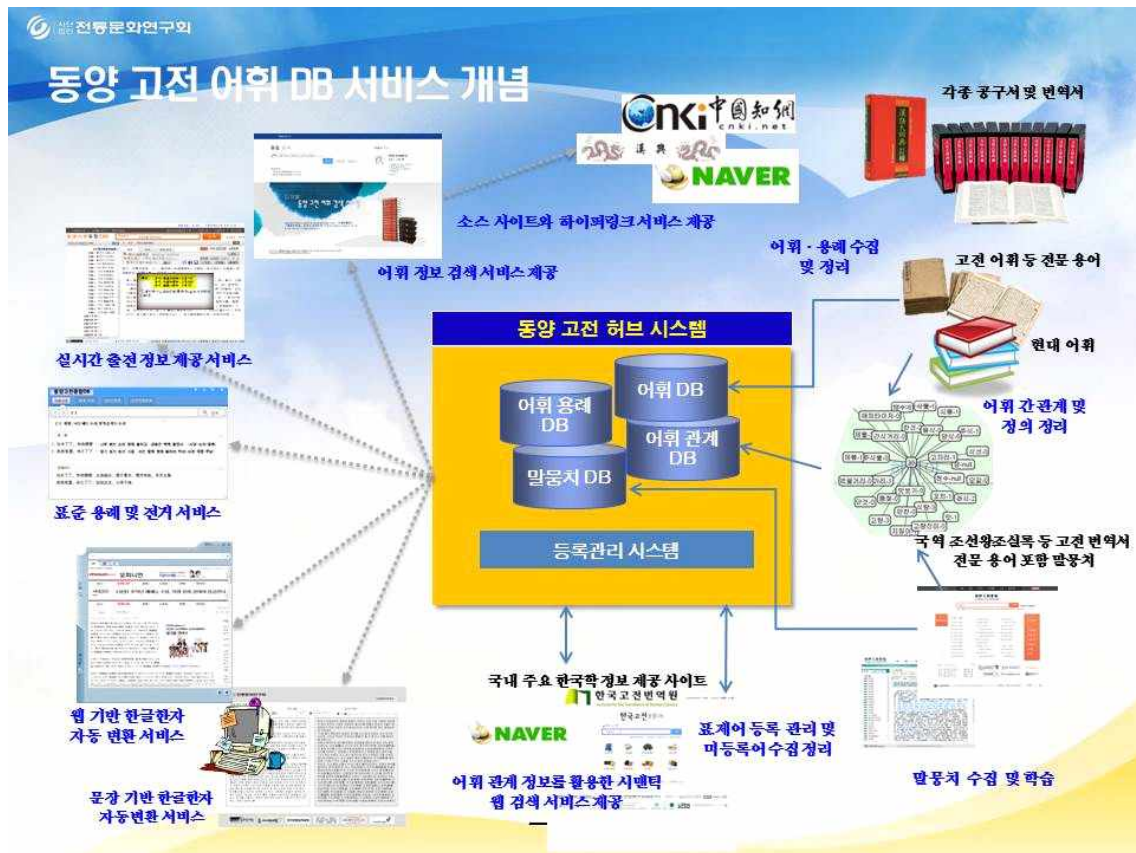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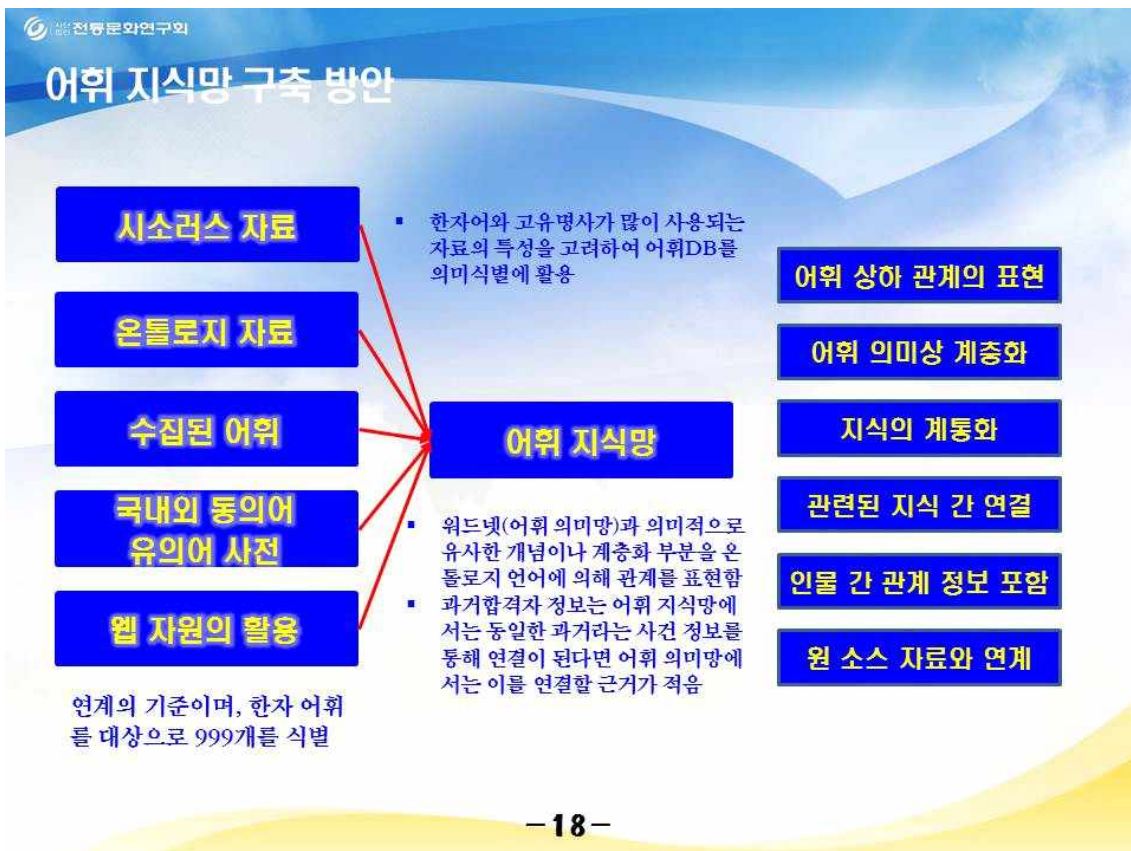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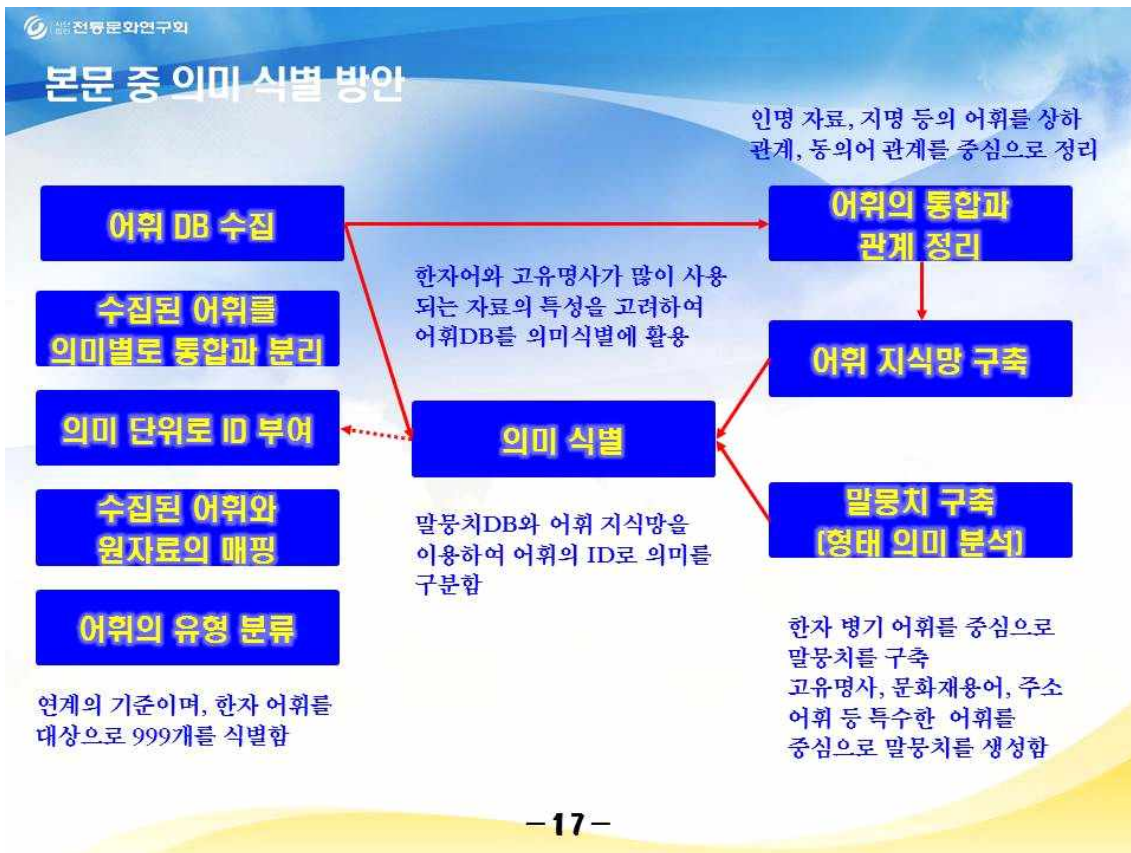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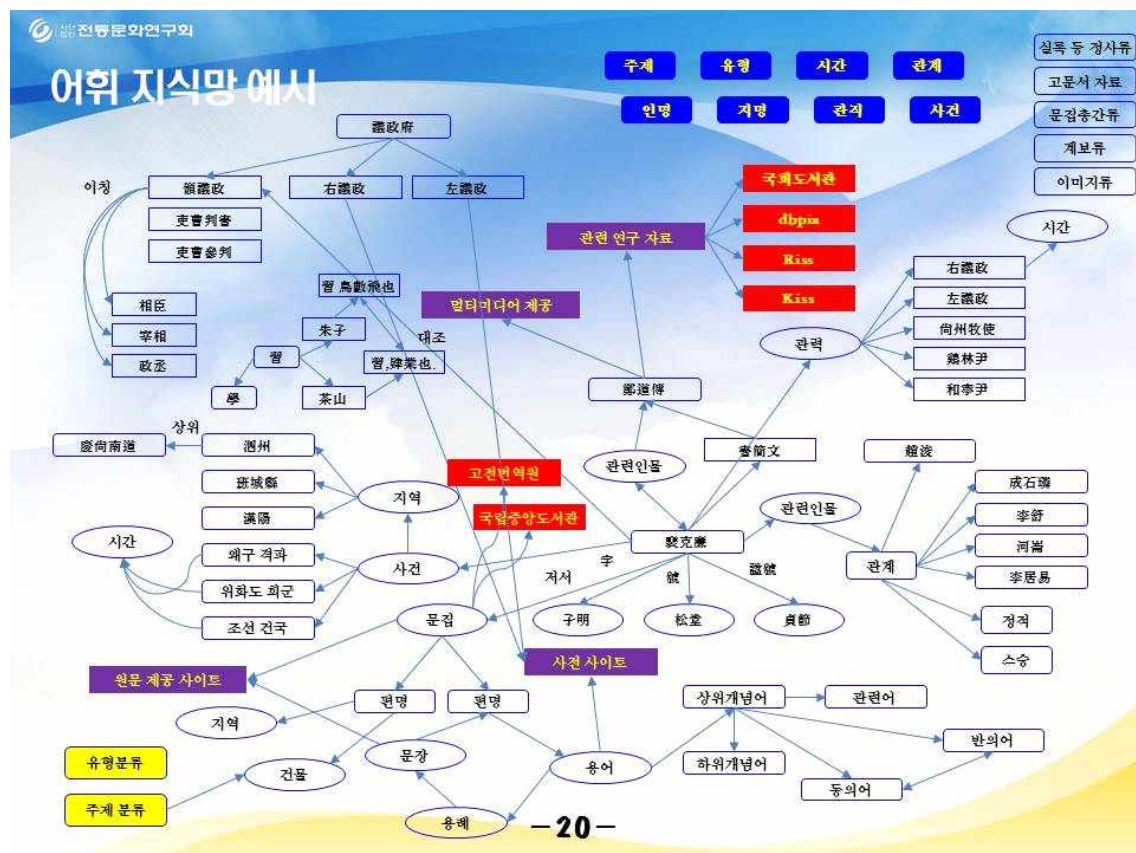
-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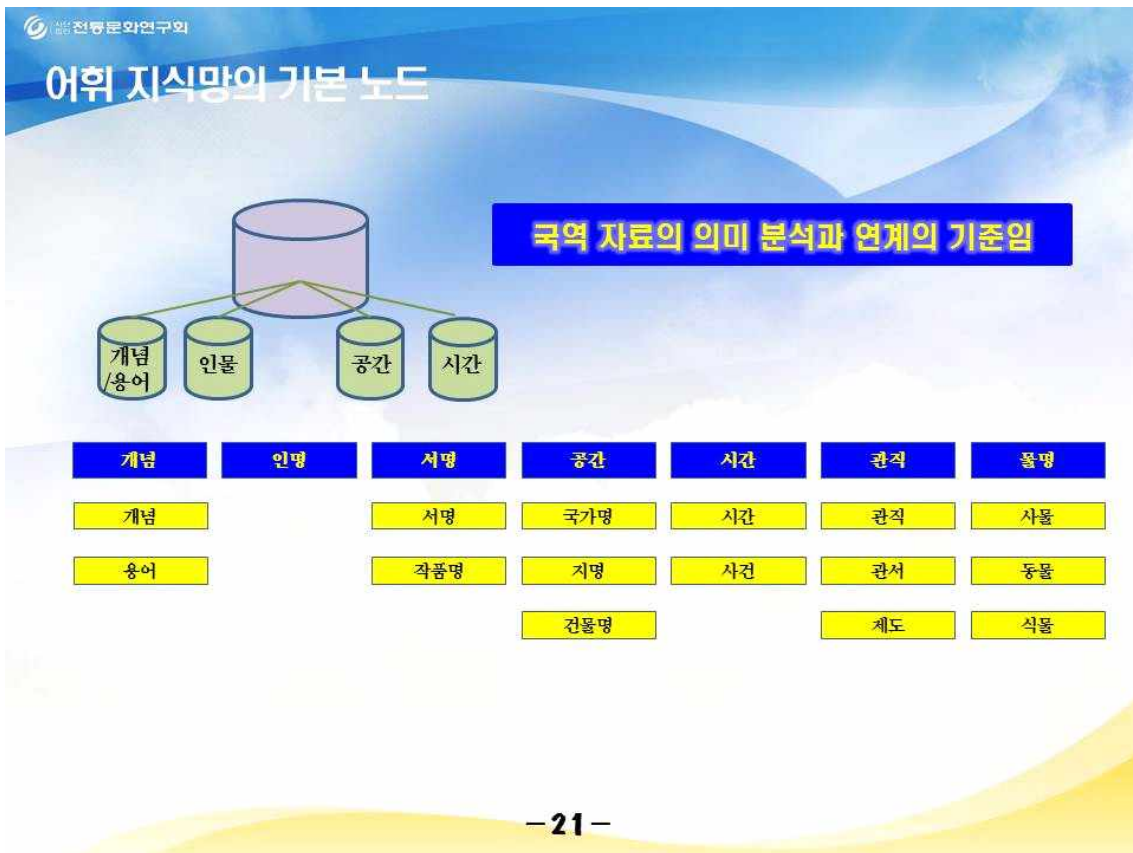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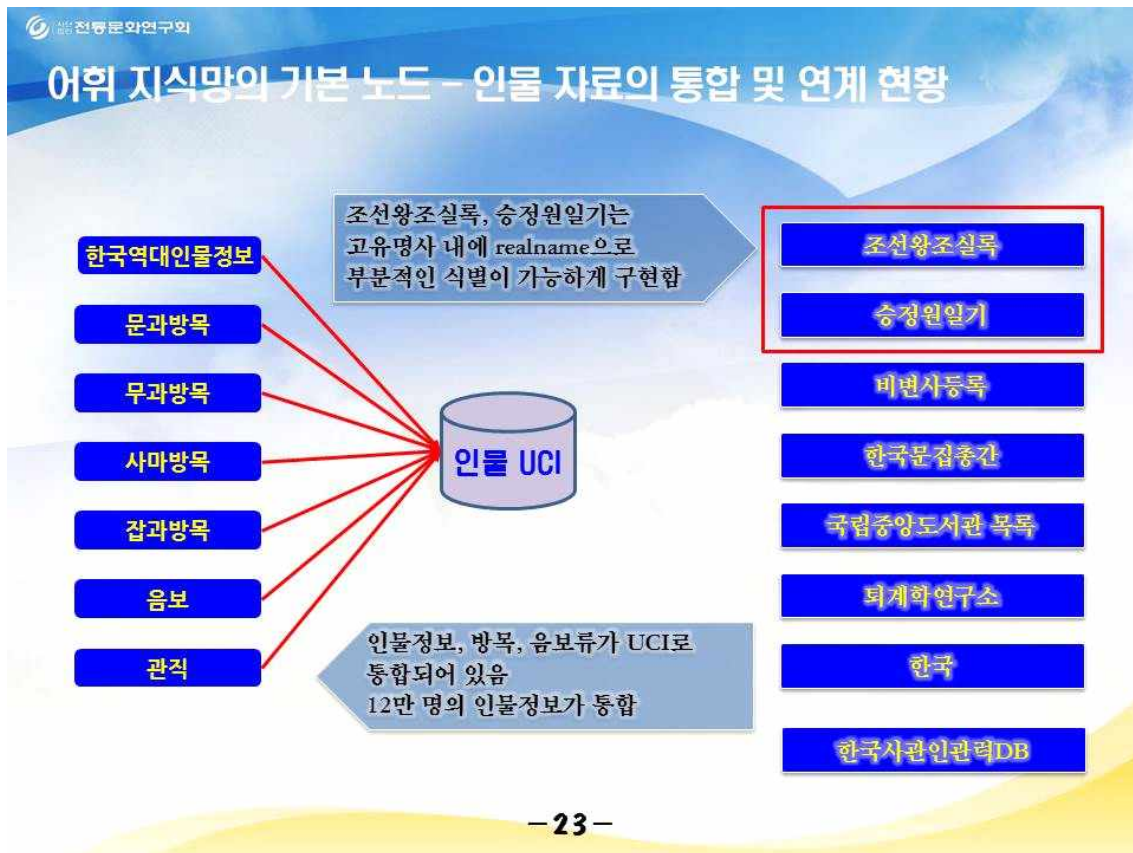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전문자료연구지원센터

자료 통합의 활용 결과- 해외 사례

London Lives 1690 to 1800 ~ Crime, Poverty and Social Policy in the Metropolis

Home Search Browse Lives Historical Background Wiki The Project

Home Search Browse Lives Historical Background Wiki The Project

John Conway, fl. 1775-1786

Contents of this Article

- Early Life in the Care of the Parish
- Apprenticeship
- Runaway and Removal

Poor Child, Apprentice, and Runaway

John Conway (or Conaway) received the full gamut of parochial care available to a poor child in the late eighteenth century, but by running away from his apprenticeship he lost the right to relief from his original parish, in spite of his efforts to return.

Early Life in the Care of the Parish

Linked Resources

- Documents about this Life

Keywords

- child
- apprentice
- pauper
- fisherman
- workhouse

- 1690년부터 1800년 사이에 영국 런던 거주민의 삶에 관계된 고문서 240,000건을 집적
- 교회 교구의 기록물을 비롯해 범죄와 재판에 관한 기록, 병원의 진료 기록과 검시 보고서, 상공인 조합의 기록, 빈민 구제에 관한 기록 등
- 런던시의 8개 아카이브에 소장된 자료를 담은 15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제작
- 이 데이터 속에 포함된 3백 35만 개의 인명을 대상으로 동일 인물들을 추적 → 18세기 런던의 하층민으로 살았던 수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재구성

국립중앙도서관 전문자료연구실

자료 통합의 활용 결과- 해외 사례



- 볼테르, 라이프니츠, 루소, 뉴턴, 디드로 등 계몽주의 시대의 인물들이 남긴 수 많은 편지의 발신지와 수신지, 발신 날짜 등의 공간과 시간 정보를 지도상에서 시각화 표현
- Mapping the Republic of Letters* 에서 사용한 모든 데이터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Electronic Enlightenment'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것
- 17세기 초에서 19세기 중반까지 약 200년의 기간 동안 7,476명의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60,647건의 역사적인 기록물을 담은 데이터베이스

- 25 -

국립중앙도서관 전문자료연구실

전통 어휘DB 구축 장기 추진 계획 로드맵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고전 종합 DB	고전종합DB 사이트 개발					고전종합DB 사이트 리뉴얼		
	고전 종합 DB 구축							
고전 어휘 DB				한자로 개발	어휘DB 개발	어휘 지식망 개발		
	고전 어휘수집 및 정리							
	어휘 관계성 정리						온톨로지 보완 및 확산	
	말뭉치 학습 및 정리							말뭉치 정비

- 26 -

傳統文化硏究會

TRADITIONAL CULTURE RESEARCH SOCIETY

漢字路 아래아 한글 애드인(Add-in)

문장·문서 단위 한글·漢字 자동변환 프로그램

동/양/고/전/정/보/화/연/구/조/

안성수

한자로(漢字路) 애드인 개요

■ 漢字路 한글 애드인이란

(주) 한글과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상에서 한글 문서의 漢字語를 문장 단위로 한자로 자동 변환해 주는 아래아 한글 추가 기능 프로그램

■ 주요 기능

- 한글 문서의 漢字語에 대해 자동으로 한자 변환 및 병기
- 변환 한자를 중국 간체자 및 일본 약자로 선택 가능
- 사용자 한자 사용 능력에 맞춘 수준별 한자 지정 가능
- 다양한 사용자 환경 및 변환 사전 설정으로 실무에 최적화 지원

■ 사용자 편의 기능

- 한자변환 단축키(F9) 및 기존 한자변환키 동시지원
- 다중출현어휘 변환 옵션 및 1자 한자 처리 변환 선택 지원
- 사용자 지정 어휘 변환 및 미변환 어휘 관리 기능 탑재
- 기초한문(천자문) 문장 탑재, 한문문장 자동변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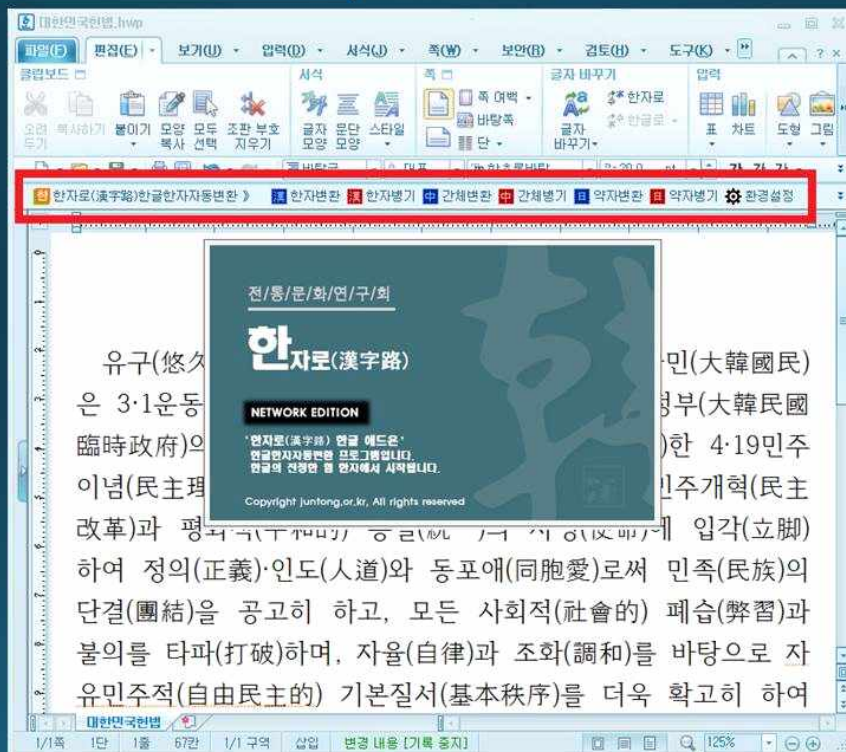
● 개발 기본 추진 방향

한자로 아래아 한글 앤드인 개발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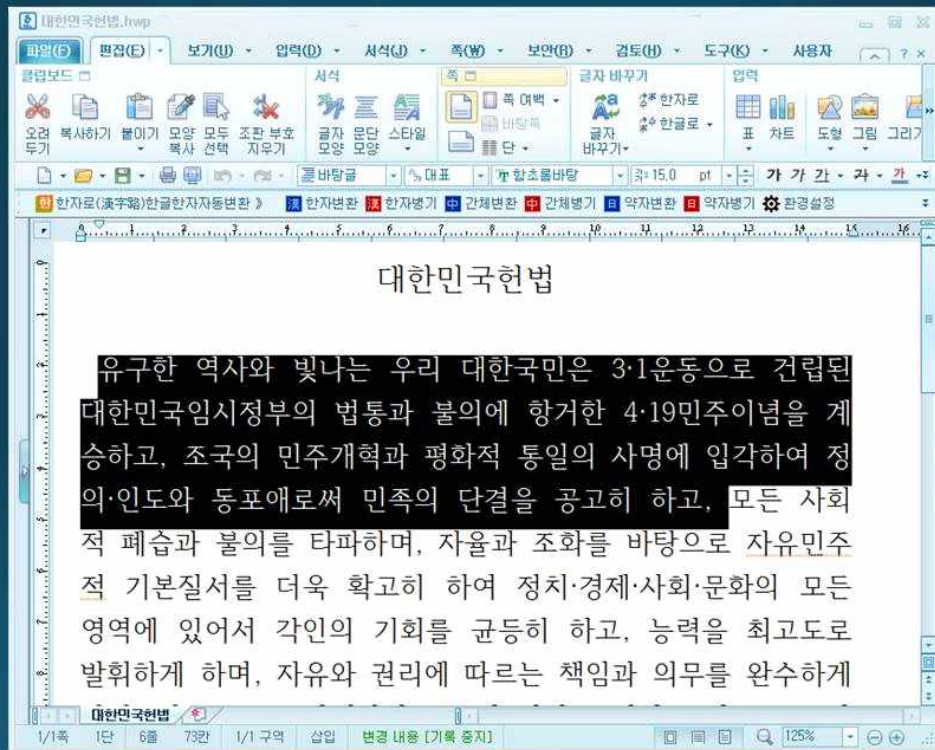


- 개별화 - 다양한 사용자들의 이용 방법에 대응
- 편의성 - 사용자들이 한자변환 및 사용에 대한 부담감 최소화
- 정확성 - 보다 정확한 변환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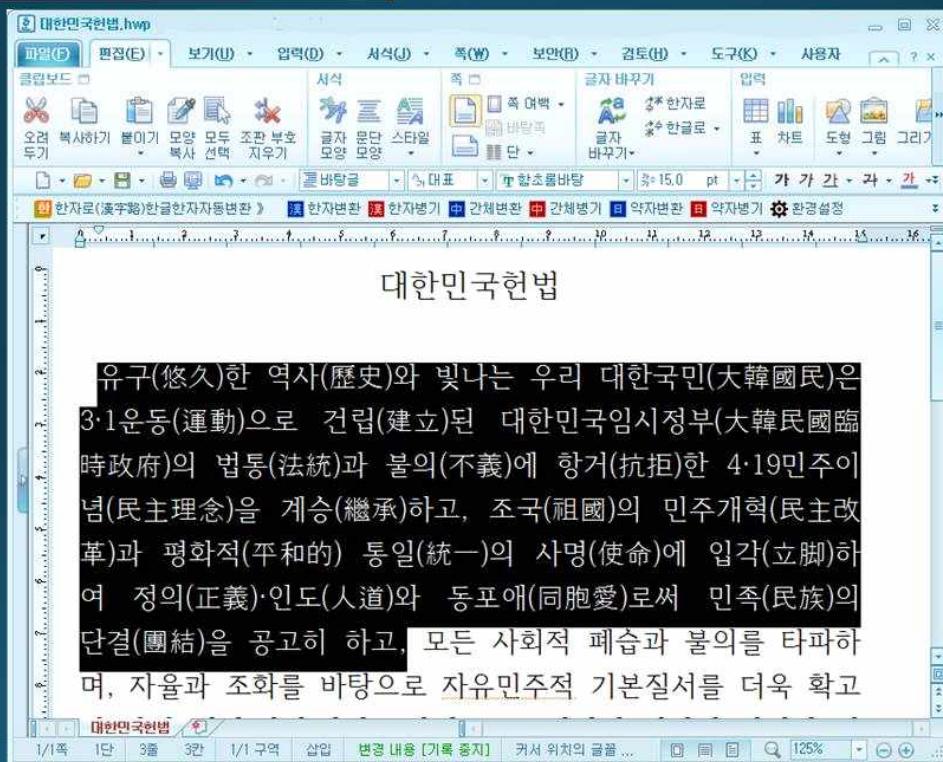
● Add-in 설치 후의 기본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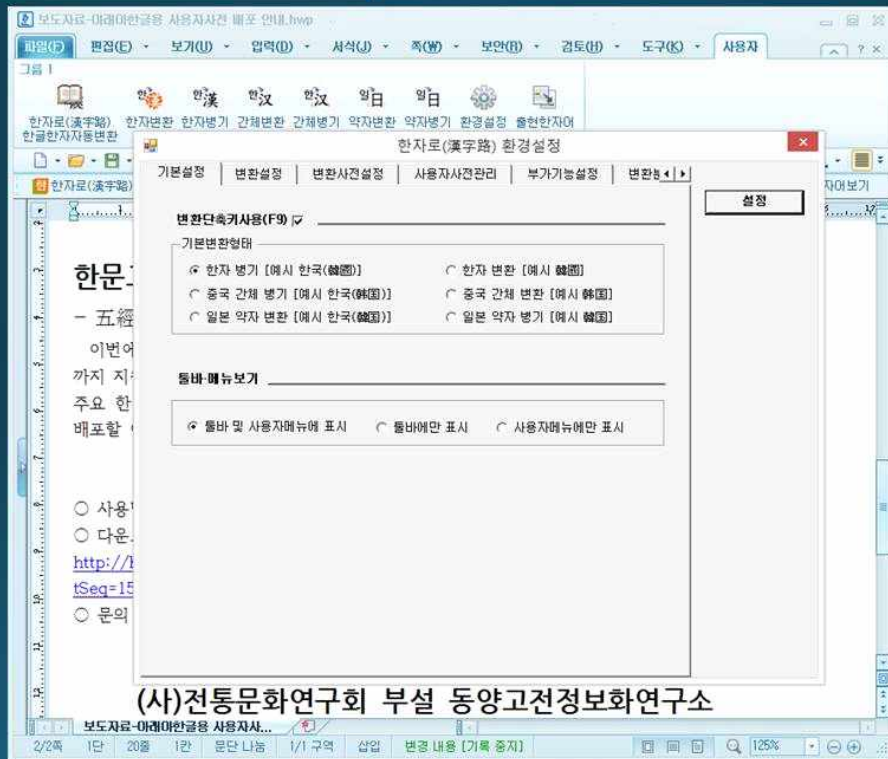
● 변환하고자 하는 영역을 선택



● '한자병기'로 실행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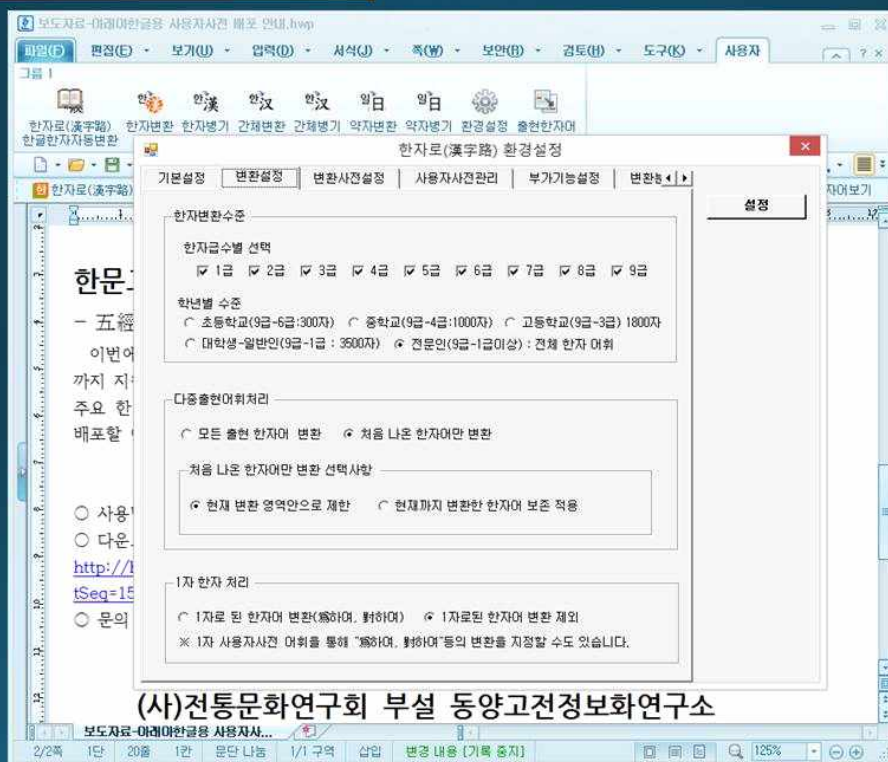


• 중국 简体 · 일본 略字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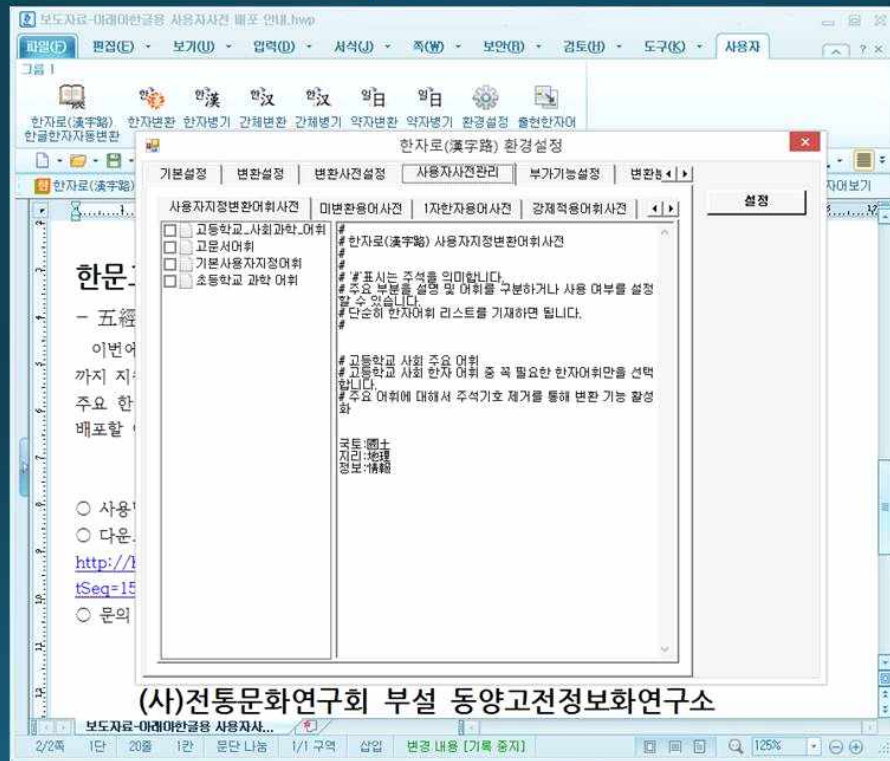
(사)전통문화연구회 부설 동양고전정보화연구소

• 변환 옵션 설정 화면 1



(사)전통문화연구회 부설 동양고전정보화연구소

● 사용자 맞춤형 변환 어휘 설정



● 추후 개발 공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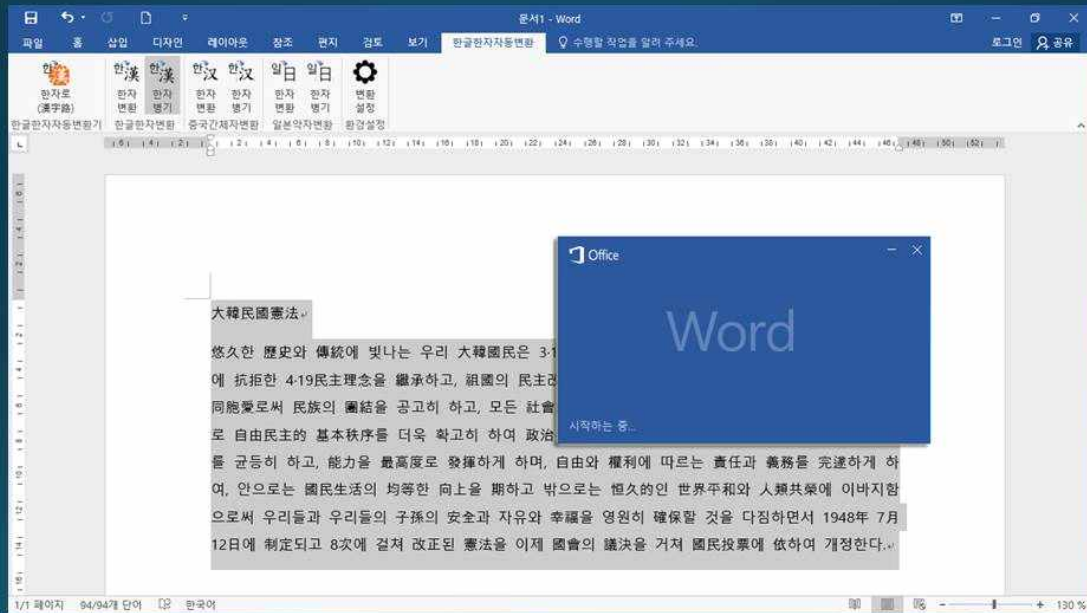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상에 Addin을 구현
기업에서도 실무에 적용할 수있도록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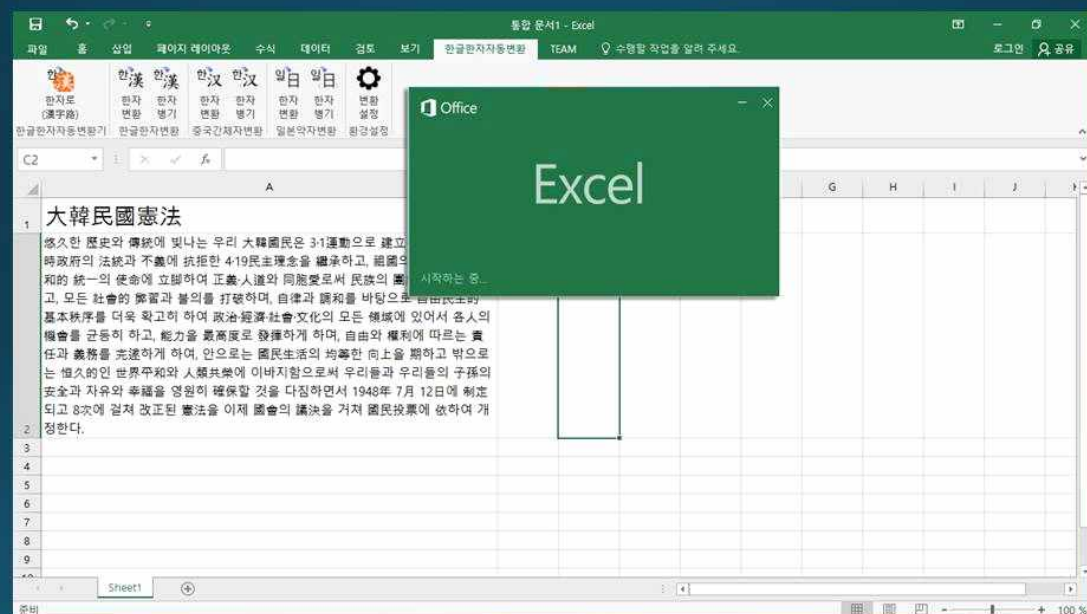
- **Microsoft Office Add-ins**

Microsoft Office Word



- **Microsoft Office Add-ins**

Microsoft Office Exc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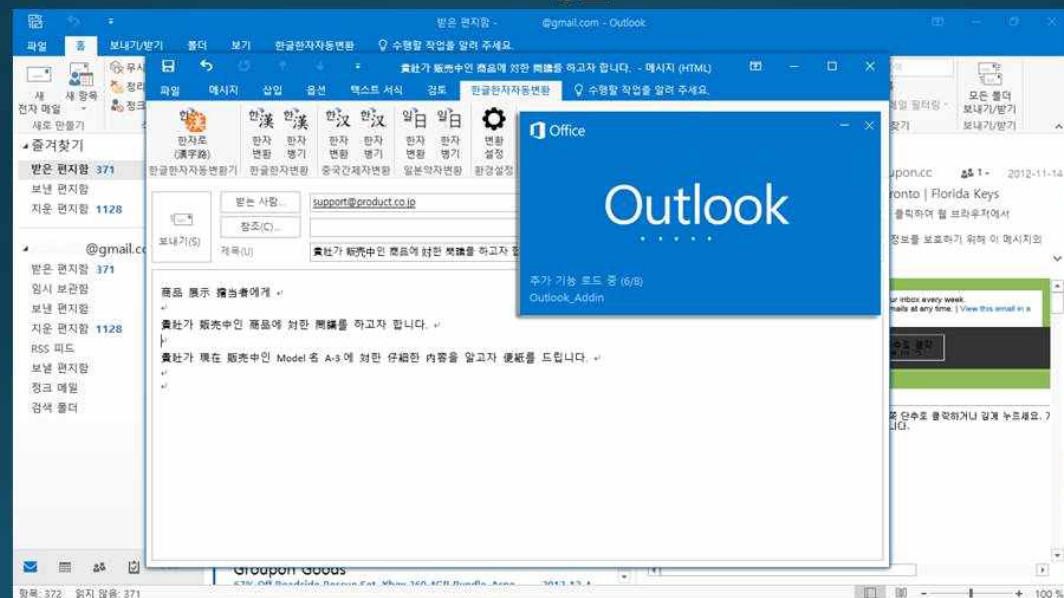
Microsoft Office Add-ins

Microsoft Office PowerPoint



Microsoft Office Add-ins

Microsoft Office Outlook-메일



漢字教育과 21세기 言語文化 改善 運動

朴 德 裕(仁荷大學校 국어교육과 교수)

1. 서론
2. 한글專用 政策의 배경
3. 정부의 語文 政策의 문제점
4. 國語科의 漢字·漢文 教育 實態
5. 漢字·漢文 教育의 必要性
6. 漢字教育과 21세기 言語文化 改善 運動
7. 結論

1. 서론

2015 개정 教育課程(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人文學的 상상력과 과학기술 創造力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根本적으로 改革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에 2014년 9월 24일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漢字教育 활성화 방안으로 “초·중고 별 적정 漢字 數 명시 및 교과서 漢字 併記 확대 방안 마련으로 중·고교 각각 900자 基礎 漢字 유지, 초등에 적정 漢字 수 도입 및 교과서 漢字 併記”를 발표했다. 따라서 2018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년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400-500자의 漢字를 한글과 併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24일, 한국 교원대학교에서 “초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정자(국가교육과정개정 연구원장)의 “한자교육 활성화와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발표와 6명의 지정토론자의 논의가 있었다. 그 배경과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7 개정 教育課程까지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재량 활동으로 漢字教育을 실시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서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하에『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에 따라 교과서에 漢字 併記를 할 수 있는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 수학, 사회 교

과서에서 일부 漢字 併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한글專用 政策은 국어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漢字語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어 使用能力 低下를 가져왔으며, 이는 漢字教育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理解하지 못하거나 우리말을 맞춤법에 따라 정확하게 表記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또한 漢字教育 활성화를 찬성하는 이유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시대로 규정되는 오늘날 漢字文化圈 국가 간의 이해와 交流 증진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漢字 能力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는 교류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文字 수단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漢字教育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教育的 效果 측면에서 漢字教育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정자, 2015).

초등학교 교과서 漢字 併記에 대한 반대 토론자들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부가 초등 교과서 漢字 併記 지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에 따라 교과서에 漢字 併記를 할 수 있는 지침이 제시되었는데, 이 규정은 교육부도 아니고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施行細則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漢字 併記를 할 경우 사교육 조장과 학습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讀書能力 신장과 語彙力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漢字 併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언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文化 속에 投影됨으로써 言語文化 개선 정책은 주로 國語 醇化 運動으로 이루어져 과거에는 주로 語彙的인 면에 초점을 두어 전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言語社會는 세계화라는 명목 하에 言語競爭 시대에 직면하고 있어서 다양한 生態學的 언어 환경에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언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 言衆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 객관적인 현상이며,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文化的 유산이다. 더욱이 2005년 국어기본법을 만들어 漢字를 외국문자로 취급하는 등 한글專用 政策은 漢字語에 대한 전문 개념어 이해 부족으로 語彙力이 매우 낮아 문장을 이해하는 정도의 文識性 평가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저로 나타났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의 漢字 語文政策을 고찰함으로써 그 문제점을 제시함은 물론, 教

育課程을 통해 漢字教育의 실태를 살펴보고, 21세기 言語文化 改善 運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2. 한글專用 政策의 배경

우리 언어의 文字 표기는 漢字를 借用해 표기해 오다가 1446년 세종대왕이 表音文字인 ‘한글’을 창제해 한글과 漢字의 混用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甲午更張 이후 國漢文混用體이던 공식적인 文體가 “독립신문”을 한글전용체로 발간한 서재필과 “국문론”을 통해 한자의 불필요성을 제기한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어 순화 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해 문체 순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글전용 문체화 운동의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다가 韓日合邦 이후 일제의 지배를 받으면서 強壓的인 外勢的 동기에 의해 일본어와 일본식 漢字語를 사용해야 했다. 이에 光復 이후 國語 醇化 運動은 자연히 日本語와 일본식 漢字語를 清算하고 다시 우리말을 回復하고자 노력했다. 주시경의 순화 정신을 이어 받은 학자들은 토박이말을 제외한 漢字語와 外來語를 순화 대상으로 삼아 이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는 민간단체인 한글학회를 통해 漢字語를 고유어로 바꾸어 순수한 우리말 사용을 普及하게 되었다. 더욱이 광복 이후 美軍政廳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취임한 최현배가 語文政策에 깊이 관여하면서 한글 專用 政策이 彈力을 받게 되었으며, 1962년 ‘한글 전용 특별심의회’가 설치되면서 한글 전용만을 내세우다보니 漢字語가 70%에 해당하는 우리 언어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돼 專門家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부감을 가져왔고, 아울러 풍성한 우리 語彙를 오히려 毀損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1972년 2월 대통령령으로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고등학교에 漢文 教科를 설치하였으며, 9월 2학기부터 중학교 漢文教育을 필수로 실시하였고, 고등학교는 1974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여 기존 古典에서 漢文을 제외하여 독립 교과로 설치함으로써 국어 교과에서 漢字와 漢文 教育은 사라지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결국 국어과에서 漢字와 漢文 教育이 중단되어 읽기 및 讀書能力 신장이나 국어 語彙力 향상 등에 많은 문제점이 提起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漢文 과목이 설립되었지만 1995년부터 시행된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選擇 科目으로 전락돼 漢文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減少하면서 漢字와 漢文 教育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 현실이므로 국어 교과에서 필요한 漢字語 학습 부분을 補完할 수 없게 되었다.

3. 정부의 語文 政策의 문제점

3.1. 國語基本法 문제

2005년 6월 27일자로 제정 공포된 ‘國語基本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점이 많다.

(1) 한글만이 國語를 表記하는 文字가 아니다.

〈제3조 1항〉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한국어를 말한다.”

〈제3조 2항〉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위에서 제시한 제3조 ‘국어의 정의’에서 한글의 고유 문자만 제시함으로써 國語의 概念을 좁게 限定하고 있다. 한글은 國語가 아니라 국어를 表記하는 文字일 뿐이다. 로마자가 미국어, 영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등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한글이 국어 표기의 유일한 文字인 것으로 표현하였다. 2,000년 이상 漢字를 混用, 併用해 온 傳統的인 체제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다.¹⁾ 참고로 15, 16세기의 주요 작품 사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① 古聖이 同符 亨 시니 〈용비어천가〉(1447)
- ② 나랏말싸미 中 國 國에 달아 文 文字 中 와로 〈훈민정음 언해〉(1459)
- ③ 防戍 亨 亨 듯 邊 方 ㅅ ㅅ 슬 히 〈두시언해〉(1481)
- ④ 卍 其 一, 巍 巍 無 無 量 量 無 無 邊 邊 〈월인천강지곡〉(1447)
- ⑤ 孔 公 子 子 子 〈소학언해〉(1587)
- ⑥ 無 無 心 心 亨 歲 世 月 月 은 〈사미인곡〉(1585-1589)
- ⑦ 늘고 病 든 몸을 船 師로 보 ㅅ 실 식 〈선상탄〉(1605)

漢字는 2,000년이 넘는 긴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모든 분야의 原動力이 되었으며 문화적 土臺의 역할을 해왔다. 국어는 표현 수단인 表音文字의 고유어와 이해 수단인 表意文字

1) 中世國語(15세기, 16세기)의 문학작품인 龍飛御天歌(1447), 釋譜詳節(1449), 月印釋譜(1459)는 한글과 漢字의 混用으로, 月印千江之曲(1447)은 한글에 漢字 併記로, 訓民正音諺解本(1459)은 漢字에 한글 併記로, 思美人曲(1585-1589)은 漢字에 한글 併記로, 船上嘆(1605)은 한글과 漢字의 混用으로 쓰였다.

의 漢字語가 주를 이룬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수록된 語彙를 어종별로 보면 고유어(131,971개, 25.9%), 한자어(297,916개, 58.5%), 외래어(23,361개, 4.7%), 혼합형태(55,523개, 10.9%) 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국어의 語彙에는 漢字語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표준 국어 대사전(1999) 수록 어휘의 어종별 통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기타 (혼합형태)	합계
표제어	111,299	251,478	23,196	54,289	440,262
부표제어	20,672	46,438	165	1,234	68,509
합계	131,971	297,916	23,361	55,523	508,771
백분율	25.9%	58.5%	4.7%	10.9%	100%

이 중 標題語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비율은 고유어 25.2%, 한자어 57.3%, 외래어 5.4%이며, 혼종어 중 한자어가 들어간 비율은 ‘고유어+한자어’는 8.3%, ‘한자어+외래어’는 3.3%, ‘고유어+한자어+외래어’는 0.2%로 11.8%에 해당된다. 따라서 漢字語의 비율은 총 69.1%이다.

〈표 2〉 어종별 비율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분석 결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표제어 수 (440,594)	111,156	252,278	24,019	36,618	1,323	14,480	720
백분율 (100%)	25.2%	57.3%	5.4	8.3	0.3	3.3.	0.2

세종대왕은 한글과 漢字 混用을 주장한 사람이다. 訓民正音의 制字原理에 의하면 音素의 명칭을 字音과 母音으로 하지 않고 初聲, 中聲, 終聲이라 하였으며, 음절 글자를 위한 成音法을 만들었다. ‘凡字必合而成音(물읜 字ㅣ모로매 어우러샤 소리 이느니)’의 규정으로 모든 소리는 서로 어울려야 音節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초성+중성+종성⇒성음’이 원칙이지만 고유어에서는 ‘초성+중성⇒성음’도 가능하다.²⁾ 참고로 〈세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 ‘東國正韻式漢字音’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여 ‘따꺾, 那郞, 世甞, 乎嚮’ 등처럼 종성을 적었고, 고유어에서는 ‘새로, 나느, 꺾디’ 등처럼 종성을 적지 않았다.

이달에 임금께서 諺文 28자를 친히 만드셨다. 그 문자는 옛 篆書의 모양을 닮은 것으로 初聲, 中聲, 終聲으로 나누며 그것들을 합하여 글자를 이룬다. 무릇 중국 문자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俚語까지 모두 쓸 수가 있고 문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 <1443년 12월 30일, 세종실록>

한글은 소리글자[表音文字]이지만 풀어쓰기가 아닌 모아쓰기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성공을 영어로 'success'로 표기하듯이 한글의 경우도 소리글자이므로 'ㅅ ㅓ ㅇ ɢ ㅓ ㅇ'으로 적어야 하는데 成音法(음절 이루기)에 의해 모아쓰기 방식인 '성공'으로 적도록 한 것이다. 이는 漢字 '成功'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종은 漢字를 排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 漢字語가 많은 것을 알기에 이를 積極的으로 活用한 것이다.

(2) 국어인 漢字語를 외국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14조 1항>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國字인 漢字를 외국문자로 취급해 버렸다. 우리나라의 國字는 한글과 漢字이며 우리 국어는 固有語와 漢字語, 外來語로 구성되어 있다. 한자어는 58.5%로 혼종어 10.9%까지 합하면 70%에 이른다. 더욱이 古代語로부터 오늘날까지 사용해 온 한자를 排除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또한 국어기본법을 잘 살펴보면 14조에 한글로 적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문서’에 限定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문서가 아닌 것은 國漢混用體나 漢字를 併記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 國語基本法이 2004년 5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漢字 混用을 주장하는 대표단체인 韓國語文會는 제3조의 ‘어문규범’ 정의에 “常用漢字” 항목을 포함할 것과³⁾ 漢字가 외국문자가 아님을 제기하였다.

(3) 한글전용 정책의 국어기본법은 違憲이다.

헌법 ㅅㅅ이 한글과 한자 混用文으로 되어 있으며, 헌법 제9조에 “국가는 傳統文化의 계

3) “어문규범”은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하는데, 여기에 常用漢字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승 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의 개념을 한글이란 문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傳統文化 계승 발전에 違背된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1조(목적)와 제2조(기본 이념)에서 한글전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기본법이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어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實定憲法上 違憲이다.⁴⁾

閔賢植(2009)은 정부의 국어 정책 기조를 1948년 건국 이래 한글전용 정책에 따라 한글전용을 추구하더라도 國語, 國史, 國文學 등 학문 분야에 따라서 또는 교과서에서 古典 원문 제시를 위해 필요에 따라 國漢混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가 한글전용을 시행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漢字·漢文 教育은 당연히 병행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國漢混用을 금지하고 한글전용을 강제함은 자칫 국민 개인의 문체상의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3.2. 教育課程의 漢字·漢文 教育의 문제점⁵⁾

漢字 및 漢文 教育은 國語 學習은 물론 다른 교과목의 주요 單語에도 도움이 되므로 學習效果를 增進시키고 人性教育을 강화시키는 물론 傳統文化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결국 이는 국가 競爭力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학교에 漢字教育에 대한 내용은 없다. 다만 창의체험활동 시간에 교장 재량으로 하는 한자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재량교육은 구체적인 지침이나 체계적인 학습 내용도 없이 말 그대로 재량이라 효과가 크지 않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漢文 교과목이 있지만 選擇 과목으로 점점 그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초·중등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중·고교 각각 900자 기초 한자 유지, 초등에 적정 한자 수 도입 및 교과서 한자 병기” 등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併記한다고 밝혀 그나마 다행이다.⁶⁾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재량활동으로 한자 500자를 가르치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 밀려 제대로 學習되지 못하고 있다.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로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

4) 李漢東 외(2012:10)에서 “우리의 국자는 한글과 한자이고, 우리 국어는 고유어와 한자어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 온 憲法的 慣習이며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법에 전제된 규범이고 慣習憲法으로 성립된 不文憲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5) 朴德裕(2014-) 참고 및 보완.

6) 교육부(2014년 9월 24일)는 2018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년이 사용하는 교과서에는 한자를 한글과 併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漢字教育이 부족해 의미 소통 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으로 2018학년에는 초등 3,4학년 교과서, 2019학년에는 초등 5,6학년 교과서에 한자 400-500자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교과서 집필기준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를 配定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교육한자 3,000자로 소학교(1-4)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초급 중학교(우리나라의 초등학교 5학년)에서 845자, 고급 중학교에서 655자, 고등전문학교에서 500자, 그리고 대학에서 1,000자를 학습한다. 일본은 常用漢字 2,136자로 소학교 1,006자(1학년 80자, 2학년 160자, 3학년 200자, 4학년 200자, 5학년 185자, 6학년 181자), 중학교 1,130자를 학습한다.

漢字와 뇌기능의 相關關係를 연구한 조장희 교수(가천의대)에 의하면 한자 사용이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暗記力과 理解力을 높인다고 했다. 즉 뇌 안에 있는 연결고리적인 시냅스(synapse)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일본에서도 이시이 이사오(石井 勳)와 도키자네 도사히코(時實利彦)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 결국 漢字教育은 論理的 사고를 맡은 좌뇌와 情緒的 사고를 맡은 우뇌를 함께 발달시켜 論理性과 感受性을 활동시켜 두뇌를 발달시킨다는 것이다.⁷⁾ 그러므로 漢字教育은 幼兒나 初等 教育 등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좋다. 日漢混用體를 사용하는 일본은 어릴 때부터 漢字教育을 철저하게 하므로 論理的 思考는 물론 創意的 사고를 발달시켜 1949년 유카와 히데키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래 2015년까지 자연과학 분야 노벨 수상자를 21명이나 輩出한 데 기여한 것으로 본다.

4. 國語科의 漢字·漢文 教育 實態

4.1. 教育課程의 變遷과 主要 內容

1945년 9월 14일 美軍政廳에서는 일반명령 제4호(9월 29일 법령 제6호로 개정)를 布告하였는데 그 내용은 “조선학교에서의 教授用語는 조선어로 함. 조선어로 상당한 敎訓材料을 활용할 때까지 외국어를 사용함도 무방함.”이라 하였다. 또한, 1945년 11월에 발족한 軍政廳學務局의 의결기관인 朝鮮敎育審議會에서도 12월 8일자로 “漢字 사용을 폐지하고 초·중등학교의 교과서는 모두 한글로 하되, 다만 필요에 따라 漢字를 괄호 안에 넣을 수 있음”이란 사항을 의결했다. 이로써 漢字 廢止의 敎育 방침이 시행되었다. 1955년 8월 제1차 敎育과정부터 2015 문·이과 統合 敎育課程에 이르기까지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차 國語科 敎育課程(1955년 8월)

국민학교 國語科에는 漢字敎育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敎育課程에만

7)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2012:16) 참조.

언급되어 있다. 중학교의 경우 주요 내용은 ‘① 漢字 및 漢文 학습의 의의, ② 漢字 및 漢文의 지도 요령, ③ 漢字 및 漢文 학습 내용’ 등이다.

“중학교 한자 및 한문 학습”에서 “국민학교에서 습득한 漢字 知識을 기초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常用漢字 범위 내의 漢字, 漢字語 및 簡易한 漢文을 습득하게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漢字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1951년 4월 30일에 한자지도요령을 발표하여 4학년에 300자, 5학년에 300자, 6학년에 400자를 配當하였다. 그러다가 1957년 10월 8일 漢字頻度調査를 참작하여 1,300자의 漢字를 제시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필수 과목으로 운영돼 국어(一)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漢字 및 漢字語 지식을 기초로 한다고 제시되었으며 점차로 학습 내용의 정도를 높여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選擇 科目인 국어(二)에서는 “현대문, 고전, 문법, 문학, 어학사, 문학사, 漢文”을 설정하였다. 漢文 시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매주 1시간 정도씩 수업을 한 것으로 본다.

(2) 제2차 國語科 教育課程(1963년 2월)

1957년 12월 6일 國務會議은 “한글 전용 적극 추진에 관한 건”을 결의하였으며, 1962년 2월 문교부에 “한글전용 特別審議會”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漢字教育에 대한 국민의 反感으로 제2차 교육과정에서 국민학교에 漢字教育을 반영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1964년 9월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4,5,6학년에서 600자, 1966년 3월 1일부터 중학교 400자(도합 1000자), 고등학교 300자(도합 1300자)를 교과서에 露出시켜 段階的으로 지도하게 하였다. 국민학교에서도 국어 시간에 주당 1시간 정도씩 漢字를 가르쳤다. 중학교 국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漢字 및 漢文 지도’로 이루어졌으며, 고등학교 국어는 국어Ⅰ, 국어Ⅱ로 나누어 국어Ⅱ에서 ‘문법, 漢文, 고전, 작문’으로 편성하였다.

(3) 제3차 教育課程(1973년 2월)

제2차 教育課程 以後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한글 전용을 강화하였다. 1969년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교과서 漢字 906자를 削除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초·중등학교 국검인정교과서 989권에서 漢字를 모두 빼고 다만 고등학교 색인에서만 약간의 漢字를 사용하였고, 古典에 서만 漢字를 괄호에 併記하는 것으로 하였다.⁸⁾

문교부에서는 1971년 12월 한문교육 준비로서 漢文科 教育과정심의위원회에서 한문 교

8) 尹義淳(1988:122) 참조.

육용 기초한자 1,800자(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를 公表하였다. 1972년 2월 대통령령 제6102호로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고등학교에 漢文 教科를 설치하였으며, 9월 2학기부터 중학교 漢文教育을 필수로 실시하였다. 고등학교는 1974년 12월 31일자로 개정하여 기존 古典에서 漢文學을 독립시켜 한문 I은 필수 및 필수 선택 과목으로, 한문 II는 인문계의 선택 과목으로 배정하였다.⁹⁾ 제3차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은 漢文 教科가 獨立 教科로 중·고등학교에 신설된 점이다. 반면에 국어 교과서는 물론, 모든 교과서에서 漢字를 削除함으로써 한글전용 정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4) 제4차 教育課程(1981년 12월)

漢文 教科의 독립 운영은 제3차 教育課程과 동일하나 ‘漢文’ 교과와 정체성 확립에 基礎를 다진 시기이다. 漢文 教科는 중학교는 필수, 고등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은 아니었지만 履修 單位 수로 볼 때 실질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운영되었다.¹⁰⁾ 국어 교과서에서 漢字는 단원마다 〈공부할 문제〉에서 몇 자씩 다루게 되었다. 國語科는 기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서 ‘표현·이해, 언어, 문학’으로, 고등학교 국어 II는 ‘현대문학, 작문, 고전문학, 문법’ 등으로 개설되었다.

(5) 제5차 教育課程(1987년 3월)

국어과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으로, 고등학교는 국어 I, II를 국어 한 과목으로 統合하고, 選擇 과목으로 ‘문학, 작문, 문법’을 두었다. 국어 교과서에서 漢字를 併記하고, 〈학습 활동〉에 漢字 問題를 실었다. 漢文 科目은 중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개설되었고, 고등학교에서는 한문 I, II를 구분하지 않고 漢文으로 統合하였다. 그리고 한문과의 지도 영역을 ‘漢字, 漢字語, 漢文’으로 구분함으로써 국어교육과의 연계성을 갖고자 했다.¹¹⁾ 참고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漢字에 대한 예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국어 1-1(1989.3.1.) 2. 읽는 즐거움 (1) 현이의 연극

〈학습 활동〉 3. 다음 한자를 익혀 보자.

9) 한문 독립 교과와 신설로 그 위상이 높아진 것 같지만 국어과에서 言語生活에 필요한 漢字와 漢字語가 삭제되고, 한문과에서는 학문적인 고전어로서의 漢文教育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0) 윤재민(2011) 참조.

11) 정달영(2004:86) 참조.

二, 休, 日, 心, 上, 失, 手, 三, 年, 仙

국어 2-1(1990.3.1.) 1. 어떻게 읽을까 (1) 어떻게 읽을까

〈학습 활동〉 3. 다음 한자를 익혀 보자.

單, 章, 考, 過, 解, 決, 常, 味, 後, 集, 合, 賞, 和, 同

(6) 제6차 教育課程(1992년 6월 고시, 1995년 시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 특별활동, 학교 재량시간’으로 편성돼, 학교장 재량에 따라 漢字를 지도할 수 있게 된 반면, 중학교 漢文이 選擇 과목으로 밀려나 사실상 중고등학교 漢文 과목은 모두 선택 과목으로 되었다.¹²⁾ 주요 내용은 제5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된 ‘漢字, 漢字語, 漢文’의 지도 내용이 보다 體系的이고 位階性을 갖춘 내용 체계로 구성되면서 言語生活에 필요한 漢文教育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漢字, 漢字語, 漢文’의 내용 체계는 漢文의 성격과 특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¹³⁾ 이는 ‘漢字語’ 영역을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漢文教育의 위계성과 계열성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漢文, 漢文 知識’이라는 새로운 내용 체계를 제시하여 ‘漢字語’를 한문 지식의 하위 영역인 ‘語彙’ 안에 두었다.¹⁴⁾ 국어과 영역은 ‘언어 사용 기능, 언어, 문학’으로, 고등학교 심화 과목은 ‘문학, 작문, 문법, 화법, 독서’ 과목을 두었고, 국어 교과서는 일부 주요 단어에 한정하여 併記하였다. 그리고 일부 주요 漢字와 漢字語에 대한 내용을 〈학습 활동〉에서 다루었다.

중학교 국어 2-1(1996.3.1.) 2. 어떻게 읽을까 (1) 어떻게 읽을까

〈학습 활동〉 3. 다음 한자의 음과 뜻을 알아보자. 그리고 각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

① 解 : 해법(解法), 분해(分解) ② 讀 : 독서(讀書), 음독(音讀)

③ 夫 : 부부(夫婦), 공부(工夫) ④ 將 : 장군(將軍), 용장(勇將)

12) 제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 학교 재량 시간을 줌으로써 제한적이거나 한자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중학교 한문이 선택 과목으로 밀려 나고, 고등학교 한문은 사도 교육청이 선택 운영하는 課程別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서 사실상 선택과목이 된 셈이다.

13) 송병렬(2003), 원용석(2009) 참조.

14) 류준경(2014:354) 참조.

- ⑤ 報 : 보도(報道), 정보(情報) ⑥ 處 : 처리(處理), 근처(近處)
 ⑦ 考 : 고안(考案), 참고(參考)

(7) 제7차 敎育課程(1997년 12월 고시, 2001년부터 시행)

제6차 교육과정과 비슷하게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활동으로 漢字敎育을 하게 되었고, 중학교 漢文 科目은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 학습해야 하는 선택 과목으로 되었다. 고등학교 漢文 과목은 일반선택의 교양과목군(漢文, 교련, 교양)에 편제되었으며, 심화선택으로 漢文古典이 개설되었다.¹⁵⁾ 내용은 漢字, 漢字語, 漢文으로 제6차와 같다. 국어과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으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국어생활, 문학, 작문, 문법, 화법, 독서’로 개설되었다. 국어 교과서에는 漢字를 괄호 안에 併記를 하고, 다만 重要 漢字語에 대해 뜻을 각주에서 다룬 정도이다. 단원의 마무리에서 약간의 漢字와 漢字語를 제시하고 있다. 생활국어에서는 漢字가 제외되었다.

예) 〈한자 공부〉

- ① 民 : 민족(民族), 국민(國民) ② 力 : 역사(力士), 무력(無力)
 ③ 音 : 음악(音樂), 모음(母音) ④ 中 : 중립(中立), 적중(的中)
 ⑤ 命 : 명령(命令), 생명(生命) ⑥ 知 : 지식(知識), 무지(無知)

(8) 2007 개정 敎育課程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재량활동으로 漢字敎育을 실시하였다. 중학교 漢文 科目은 교과 재량활동 시간에 학습해야 하는 選擇 과목으로, 고등학교 漢文 과목은 2,3학년을 대상으로 보통교과 ‘한문교양’ 과목군에 漢文 I, 漢文 II로 개설되었다. 내용 체계는 漢文(읽기, 이해, 문화), 漢文 知識(한자, 어휘, 문장)으로 구성되어 제6차와 7차에 주요 내용으로 다루던 ‘漢字語’가 한문 지식 영역의 ‘語彙’ 속에 편제되었다. 국어과 영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매체언어, 문학, 작

15) 김왕규(2009:137-138)는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 한문과의 위상은 필수 교과에서 선택 과목의 하나로 변화되었으며, 이는 국가가 지정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교과에서 이제는 敎育者와 需要者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선택 교과의 성격 전환으로 보았다. 아울러 이런 전환이 교과 내적 가치와 論理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념의 표방과 도입에 의한 外在的 要因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문, 문법, 화법, 독서' 등으로 개설되었다.

(9) 2009 개정 敎育課程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서 “(6) 漢字教育 등은 관련 교과와 創意的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體系的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중학교 漢文 과목은 선택과목군(漢文, 정보, 환경, 생활외국어, 보건, 진로와 직업)의 하나로, 고등학교 漢文 과목은 보통교과의 ‘생활교양’ 과목군(기술가정, 제2외국어, 漢文, 교양)에 한문Ⅰ, 한문Ⅱ로 개설되었다. 내용 체계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같다. 국어과 영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Ⅰ, 화법과 작문Ⅱ, 독서와 문법Ⅰ, 독서와 문법Ⅱ, 문학Ⅰ, 문학Ⅱ’로 개설되었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아주 일부 단어만 漢字 併記로 되었고, 단원 마무리에 나오는 漢字 학습은 없어졌으며, 생활국어는 漢字 併記가 없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주요 단어에 대해서만 일부 漢字 併記가 있으며, 단원 마무리에서 漢字語 5-6개 정도가 제시되었다.¹⁶⁾

(10) 2015 개정 敎育課程(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새 敎育課程은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涵養하여, 人文學的 想像力과 과학기술 創造力을 갖춘 창의융합형 人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2014년 9월 24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국어과는 공통과목 국어와 일반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으로, 그리고 진로 선택으로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읽기’ 과목으로 개설하기로 했다. 중학교의 경우 ‘과학, 기술가정’(646) → ‘과학, 기술가정, 정보’(680)으로 되고, 선택교과군(한문 등)은 ‘204 → 170’으로 줄어들어 漢文 등 選擇 과목의 경우 그 시수가 더 줄어들게 되었다. 고등학교 漢文은 생활 교양 과목군(기술가정, 제2외국어, 漢文, 교양)으로 2009와 동일하되, 한문1은 일반선택으로 한문Ⅱ는 진로선택으로 개설된다.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초·중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 초·중고 별 적정 한자 수(數) 명시 및 교과서 한자 병기(併記) 확대 방안 마련, 중·고교 각각 900자 기초 한자 유지, 초등에 적정 漢字 수 도입

16) 2011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9와 동일하며,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으로 ‘국어1, 국어2’, 국어 이외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과목으로 개설되었다. 漢文의 교과 영역은 2009 교육과정과 동일하다. 다만 내용 체계에서 ‘한문, 한문 지식’이 ‘독해, 문화, 한문 지식’으로 바뀌었다.

및 교과서 漢字 併記.

② 演劇 教育 活性化: 국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한 연극 교육 활성화, 고교 예술 교과(군)에 ‘연극’ 과목 신설 검토, 초등학교 5·6학년군 국어과에 연극 대단원을 개설하여 연극 체험 기회 확대, 중학교 국어교과에 연극 단원을 신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연극’의 체계적 지도, 자유학기제에 ‘연극’ 프로그램 개설.

③ 초등 1~2학년(군) 수업 시수 増配 방안: 학년별 주당 1시간 증배하여 ‘安全 生活’ 교과 신설.

④ 人文學에 대한 사회적 관심 増大 등에 따라 고교에 人文教科 영역 신설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제안. 예) 국어: 인문 고전읽기 교육 강화, 토론교육의 활성화 등

4.2. 漢字· 漢文 教育의 실태

현재 漢字 및 漢字語 教育을 國語科에서 하지 않고 있으며, 漢文科에서도 漢字·漢文 教育을 하지만 선택과목이라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언어생활에 필요한 語彙의 이해 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태이다.

(1) 國語科에서 漢字教育 실태

제3차 교육과정에서 漢文 과목이 獨立되면서 국어과에서 漢字教育은 사실상 全無한 상태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漢字는 아예 사라지고,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일부 주요 單語만 併記되고 단원 마무리에서 漢字 및 漢字語 몇 개만 제시될 뿐이다. 그러나 이 역시 수업 시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사도 학생들도 漢字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며,¹⁷⁾ 학교 평가시험이나 수능시험에도 漢字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 放棄하는 상태이다.

(2) 漢文科에서 漢字教育 실태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漢文教育의 목표를 보면 중학교에서 900자의 基礎 漢字를 배우게 되어 있다. 900자의 漢字를 알면 造語力의 특징이 있어 많은 漢字語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그 이유는 漢文 科目이 선택 과목이므로 漢文 수업

17) 전국 사범대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漢文教育’이나 ‘漢文講讀’이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지만 수강하는 학생들이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임용고사에도 한자 문제가 출제되지 않으므로 학생들은 관심이 없다.

을 듣는 학생 수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김왕규·김경익(2009:282)에서 중학교 한문 선택 현황을 보면 2008년 한문을 선택한 학급은 40,846개(69.46%), 학생은 1,447,412명(71.0%)이다. 尹在敏(2009:66)의 인문계 고등학교 개황을 토대로 2008년 한문을 선택한 학급 수는 12,692(48.46%)이고, 한문고전은 1,381개(5.27%)이다. 학생 수를 보면 漢文을 선택한 학생은 400,651명(44.17%), 한문고전은 47,726명(5.26%)이다.¹⁸⁾ 류준경(2014:342)에 의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학교 현장의 漢文教育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1년 중학교 한문을 선택한 학교 수가 2010년에 비해 5.0%가 減少하고,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 16%가 減少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도의 漢文 敎員 數가 2011년에 비해 12%나 減少했다고 제시했다.

〈표 3〉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 한문 선택 현황(2008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중학교(한문)		2,834개(92.1)	40,846개(69.46)	1,447,412명(71.0)
고등학교	한문	1,225개(82.05)	12,692개(48.46)	400,651명(44.17)
	한문고전	251개(16.81)	1,381개(5.27)	47,726명(5.26)

(3) 國語 使用의 能力 不足

漢字教育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의 言語 使用 能力은 매우 不足한 것이 사실이다. 민현식(2012)에서는 한글전용 문화가 普遍化되면서 漢字語로 된 전문 개념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독해력이 매우 낮아 실질 문맹률인 文識性(文解力, literacy) 평가에서 한국은 하위권에 속하였고, 특히 文書文識性(document literacy) 부문에서 한국인 고학력자층은 OECD 국가 중 最低로 나타났음을 제시했다. 그리고 전광진(2015)은 漢字語를 이해하는 能力을 기르려면 漢字 學習을 해야 하므로 사교육 시장이 크다고 하는데 이는 杞憂라고 했다. 그 이유로 형태 분석법을 활용한 국어사전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能力을 길러주는 사교육 단체도 없으며, 더구나 그러한 사전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개발되어 있어 스마트폰에 무료로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漢字 併記 반대론자들은 이를 영어와 같은 사교육시장에 비유했는데 이것이야말로 杞憂이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漢文 수업이 있어 매 학기마다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課外를 하고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漢字 併記 반대론자들은 漢字

18) 통계 비율은 본인이 주어진 통계 제시를 활용해 2학년과 3학년 학생 수를 합산해 제시한 결과이다.

교육을 하면 學習量 부담이 커진다고 했는데, 이 역시 문제 될 것이 없다. 현행 교과서에 나오는 語彙의 상당수가 漢字語이므로 오히려 漢字語 학습은 早期에 해야 한다. “앞으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온다.”를 “앞으로 무인(無人) 자동차 시대가 온다.”처럼 漢字를 併記하는 것이 문장 이해를 돕는 데 기여해 오히려 學習 效果를 가져 온다.

5. 漢字·漢文 教育의 必要性

5.1. 傳統文化의 繼承을 위하여

漢字와 漢文 教育은 先人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健全한 價値觀과 바람직한 人性을 함양하며, 우리 생활 전반에 면면히 이어 온 傳統文化를 바르게 이해하고 創造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고 漢文科目 目標(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서 밝혔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선인들의 智慧와 文化를 통해 문화와 사유의 특성을 후대에 傳承하고 創造하는 매우 값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歷史와 함께 공유해온 漢字文化를 통해 올바른 傳統文化를 이해하고 傳承시키기 위해 漢字教育은 必須的이다. 漢字教育이 이루어짐으로써 한문문화와 古典 文獻을 이해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역사와 문화의 正體性을 바로 세울 수 있다.

5.2. 韓國語의 生存 戰略과 世界化를 위하여

'에스놀로그(Ethnologue)'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6,912개이며, 이들 언어 가운데 言語 傳授 기능이 가능한 언어는 300개 미만으로 세계인의 96%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도 100년 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일부 언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모두 消滅될 것으로 볼 수도 있다.¹⁹⁾ 1,2주에 하나의 言語가 사라지고 있을 정도로 言語戰爭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韓國語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국어인 한글과 漢字의 강점을 살려 나가지 않으면 우리 언어도 소멸될 수 있을 것이다.²⁰⁾

세계 言語競爭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나아가 韓國語의 世界化²¹⁾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19) 박덕유(2007) 참조.

20) 로마제국의 라틴어와 청나라의 만주어도 死語가 되었고, 천 년을 사용해 온 오토만의 아랍 문자는 로마자로, 몽골의 파스파 문자는 시릴릭(Cyrillic) 문자로 바뀌었다.

21) 박영순(1997:356)은 한국어의 세계화란 한국어가 세계에서 주요 언어로 인식되고, 교육되며, 하나의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되는 것이라고 했다.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한국어의 競爭力은 表音文字인 한글과 表意文字인 漢字의 相互補完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글은 자체가 간결하고 科學的이며 體系的이다. 따라서 배우기가 쉽고 표현(쓰기)이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식과 이해가 어렵다. 글자체가 동일하며 劃一的이라 시각화한 점에서 지루하다. 또한, 有聲文字가 없으며 파열음 문자가 많은 반면에 마찰음 문자가 적은 편이다. 물론, 파열음 계통에 平音, 激音, 硬音을 적을 수 있는 장점은 있다. 로마자는 어두에 대문자를 쓸 수 있고 때로는 하이픈(hyphen)을 쓰며, 이탤릭체도 사용해서 글자를 시각화한다. 일본 문자는 漢字를 混用해서 사용한다. 한글은 세계어로서의 有用性(usefulness, adequacy)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한글은 造語力과 縮約力이 부족하며 同音異義語의 구별이 어렵고 문화전통 계승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補完할 수 있는 것이 漢字이다.

漢字는 배우기가 어렵고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長點으로 우선 造語力과 縮約力을 들 수 있다. 즉, 900개 한자를 알면 70,000개의 어휘를 이해하고, 1,600자를 알면 25만개의 어휘 이해를 이해할 수 있으며, ‘大’를 알면 ‘大國, 大小, 大笑, 大學, 大洋’ 등 823개 어휘를 이해한다고 한다. 둘째로 同音異義語 識別이 가능해 의미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漢字 지식이 있어야 漢字語를 한글로 쓸 때 ‘兄弟(형제), 現在(현재), 自己紹介(자기소개), 再昨年(재작년)’ 등²²⁾ 한자어의 맞춤법을 옳게 표기할 수 있다.

5.3. 漢字文化圈의 國家 競爭力을 위하여

漢字 및 漢文 教育의 목적은 “한자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交流 增進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라고 했듯이 漢字와 漢文은 漢字文化圈의 구성원들이 相互 疏通할 수 있는 기본 도구이며, 漢字의 음은 서로 다르지만 漢字의 형태와 뜻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서로를 理解하고 交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한국, 중국, 일본 한자문화권의 同質성과 大衆성을 스스로 포기한 국가가 돼 競爭力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세계 인터넷(텍스트) 言語 順位는 ① 영어(55.7%) ② 러시아어(6%) ③ 독일어(6%), ④ 일본어(5%) ⑤ 스페인어(4.6%) ⑥ 프랑스어(4%) ⑦ 중국어(3.3%) ⑧ 포르투갈어(2.3%) ⑨ 이탈리아어(1.8%) ⑩ 폴란드어(1.7%) ⑪ 터키어(1.3%) ⑫ 화란어(1.3%) …… ⑮ 한국어(0.4%)²³⁾ 등이다. 漢字를 사용하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제외하면 대부분 로마자이다. 우리

22) 박덕유(2009)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글쓰기 실태 조사에 의하면 ‘兄弟를 형제, 現在를 현재, 自己紹介를 자기소개, 再昨年을 재작년’ 등 한자를 몰라 맞춤법이 틀린 경우를 제시했다.

가 漢字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2014년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세계 言語 順位(인구 수)에서 한국어는 13위를 차지했다. 언어 관련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언어정보 제공사이트 '에스놀로그(Ethnologue, www.ethnologue.com)'에 따르면 한국어 사용자 수는 지난해까지 6,640만명에서 올해 7,720만명으로 공식 집계돼 기존 18위에서 13위로 상승했다. 그 순위는 '① 중국어 ② 스페인어 ③ 영어 ④ 힌디어 ⑤ 아랍어 ⑥ 포르투갈어 ⑦ 벵골어 ⑧ 러시아어 ⑨ 일본어 ⑩ 자바어 ⑬ 한국어' 등이다.²⁴⁾

앞으로 세계의 언어는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알파벳 로마자문화권과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 漢字文化圈으로 再編될 가능성이 크다. 漢字는 동아시아의 共用文字로 오랫동안 사용해 왔으며 東洋文化를 형성해 세계 인구 20억 정도가 漢字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자문화권에서 落伍가 되면 안 된다. 허철(2011)은 近代 이후 생성된 한자문화권을 '新漢字文化圈'이라 하고, 漢字와 漢文 教育이 보편 교양 과목으로 인식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언급하였듯이 漢字와 漢文 教育이 한국에서만 아니라 신한자문화권 공통의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한다.

5.4. 國語 教科와 他 教科의 語彙[漢字語] 教育을 위하여

‘국어’ 교과목의 목표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올바른 국어 생활을 통해 건실한 인격을 형성하여 건전한 국민 정서와 미래 지향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다.”²⁵⁾ 그러므로 國語 使用 能力을 伸張시키는 방법은 1차적으로 語彙 能力이며, 어휘의 상당수는 漢字語이므로 漢字教育은 국어과에서 필수적인 學習 要所이다.²⁶⁾ 漢字, 漢文 教育의 必要性에 대해 尹在敏(2009:54)은 傳統文化에 대한 이해의 측면과 言語生活의 측면을 들어 설명했다.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의 일상 어휘의 상당 부분이 漢字語에서 유래한 것이며, 專門의이고 學術的 用語 등 개

23) 김진우(2014:14) 참조.

24) 그러나 한국어 사용자의 대부분이 우리 민족의 이민자들이므로 앞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25)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에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는 국어과 교육과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 올바르게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6) 漢字 理解力이 語彙力에 기여하는지 설문 조사가 있다. 방인태(1998)에서 초등학교사 96.4%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민현식(2009)에서 국어 중등학교사 91.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넘어들 역시 동아시아의 한문 고전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漢字의 造語力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했다.

전광진(2015)은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ulary,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단어)²⁷⁾의 98%가 漢字語라고 했다. 따라서 漢字語 없이는 적절한 思考와 이를 통한 의사 표현 및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제시함으로써 漢字 語彙가 얼마나 중요한 位相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하나의 고유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다양하고 심도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漢字語 사용이 불가피함을 제시하였다. 즉, 고유어에 평균 28개의 어휘력을 한자어가 더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유어 ‘말하다’에 類義 관계를 갖는 한자어는 ‘言及하다, 發言하다, 發話하다, 說明하다, 解明하다, 陳述하다, 口述하다, 說破하다, 喝破하다, 開陳하다’ 등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漢字語에 대해 漢字 併記를 확대하려는 정책은 확실히 이론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5.5. 서구계 外來語를 醇化하기 위하여

조선 초까지는 우리 언어를 漢字로 표기하다가 訓民正音 창제 이후 주로 國漢混用體로 사용해 왔다. 그러다가 “독립신문”의 한글전용체 발간을 시작으로 國語 醇化 意識이 자리 잡기 시작해 文體 醇化 運動이 일어났으며, 韓日合邦 이후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던 것을 바로 잡는다는 이유로 광복 이후 국어 순화 운동은 자연히 日本語와 日本式 漢字語를 清算하고 다시 우리말을 回復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주시경의 순화 정신을 이어 받은 학자들은 토박이말을 제외한 漢字語와 外來語를 순화 대상으로 삼아 이 운동을 전개했다. 1970년대 서양 문명이 들어오게 되자 서구계 외래어가 사용되면서 1976년 대통령령에 의한 ‘국어순화운동협의회’가 發足되어 간판명이나 과자명, 그리고 放送 용어 등 주로 외국어나 외래어에 대한 순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1984년 문교부 산하 ‘국어연구소’가 설치되어 國語規範 정비 작업을 통해 語文規範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1991년 국어연구소를 이은 국립국어연구원과 학자들은 순화 대상을 서구계 외래어로 한정하여 지속적인 국어 순화 작업을 진행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²⁸⁾

27) 신명선(2014)에서 사고도구어를 학문적 대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 과정을 드러낸다는 것, 전 학문 분야에 걸쳐 두루 나타난다는 것, 사고 및 논리를 전개하는 틀이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프레임(frame)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학술 텍스트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기술했다.

28) 최근에 영어공용어화 바람마저 거세게 불면서 이제 영어는 정부, 언론, 교육 등 곳곳에서 우리 언어를 잠식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한글전용이 한자, 한자어를 몰아내면서 어휘의 빈곤을 가져오게

국어 순화어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야 하므로 漢字語를 積極的으로 活用해야 한다.²⁹⁾ 한국어는 표현 수단인 表音文字의 고유어와 이해 수단인 表意文字의 한자어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한자의 장점인 造語力, 縮約力을 활용해서 醇化語를 만드는 것이 效率的이다. 민현식(2009)은 외국 專門用語의 翻譯 受容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고유어 중심의 순화정책의 실패 원인이 고유어 중심 번역 순화에 있었으므로 국어의 漢字語 字源을 번역 순화어의 어근 및 접사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자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6. 漢字教育과 21세기 言語文化 改善 運動

6.1. 21세기 言語文化의 現實과 나아갈 方向

언어는 어떤 사회 구성원의 약속에 의해 성립되더라도 文化의 발달과 인간 사회의 諸般 요소들에 의해 끊임없이 變化한다. 특히 文明이 발달하면서 사회는 더욱 複雜해지기 시작했고, 더불어 수많은 發明品과 새로운 물질이 開發되고 있어 이를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語彙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21세기에는 인터넷 사용과 PC 通信이 확대되면서 인간 생활의 모든 領域을 變化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통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通信言語는 수많은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언어는 오히려 우리 언어를 破壞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³⁰⁾ 또한, 20세기 언어가 産業化에 따른 도시화, 그리고 大衆媒體의 영향으로 현대사회의 相互作用의 多樣性を 促進시킴으로써 複合的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면, 21세기의 언어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語法에 맞지 않고 사용하는 語彙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言語文化 현실을 勘案해 볼 때 새로운 어휘를 한글로 순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 縮約性和 造語力을 지닌 漢字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소리 나는 대로 적는 連音 표기로 인한 맞춤법 파괴 현상도 漢字教育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言語競爭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일본 등 漢字文化圈의 국가들이 세계의 주요 국가로 浮上하면서 漢字와 漢文 教育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고립되거나 落伍되지 않도록 漢字教育을 강화해야 한

되고, 그 자리에 서구어가 대체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29) 남광우(1977)는 무엇보다도 한자나 한자어를 기피하는 편협성은 지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로 2천년 이상 사용해온 역사, 고유의 한자음 동화도(同化度)로 보아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한자의 장점인 시각성, 조어력, 축약력 등을 이용하여 조어하는 것이 외래어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30) 최혜원(2014:62-63)은 21세기 言語文化 현실을 어려운 외래어·외국어로 가득찬 공공언어, 품격을 고려하지 않은 방송언어,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인터넷 언어폭력,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언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다.

6.2. 정부의 語文政策 改善 運動

2005년 1월 27일 제정된 ‘國語基本法’은 한글 전용만 明文化한 것이므로 수정되어야 한다. 즉, 제3조 국어의 정의에 고유어 이외에 ‘漢字語’를 분명하게 기술해야 하고, 국어의 표기 문자로 한글만이 아닌 ‘漢字’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語文規範 설명에도 ‘教育用常用漢字’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14조에 공문서 기록을 규정하면서 漢字를 영어와 같은 외국문자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慣習憲法 위반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어의 發展과 保全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國語審議會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어야 하는 등 語文教育의 정책적 변화를 통해 우리의 傳統文化를 繼承하고 발전시켜 國家 競爭力을 강화해야 하며, 21세기 한자문화권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한국어의 世界化를 이루어야 한다.

요즘 초등학교 漢字 併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교육부가 초등 교과서 漢字 併記 지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교육부도 아니고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施行細則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³¹⁾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漢字 併記를 제한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박용규(2015:22)에서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漢字를 併記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유의점〉이라는 시행세칙 규정을 가지고 漢字 併記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국

31) 모든 교과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여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論意는 답변할 가치도 없다.

어기본법을 위반한 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의 초등 교과서 漢字 併記 추진은 국어 기본법에서 규정한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유의점〉에 들어간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는 削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1조 1항과 2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漢字 併記의 경우를 오히려 열어 놓은 것이다. 왜냐하면 교과서의 漢字 併記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必要的 要所이며, 어렵거나 낯선 專門語 또는 新造語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히려 ‘14조 1항이 수정되어야 한다. 〈14조 1항〉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이는 민현식 (2012:174)에서도 제시하였듯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漢字는 괄호로 併記하며, 외국 문자는 괄호에 쓰도록 한다.” 로 수정되어야 한다.

6.3. 教育課程 改善 運動

漢字·漢文 教育이 體系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漢字教育 위주로, 중·고등학교에서는 현행대로 漢文教育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2018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년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400-500자의 한자를 한글과 併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에 따라 고등학교에 人文敎科 영역 신설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어과에 인문 고전읽기 교육 강화, 토론교육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고전읽기 교육 강화’에 ‘漢文’을 넣는 것이 그 한 방법일 것이다.

6.3.1. 초등학교 漢字教育 方案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재량활동으로 漢字教育을 실시하였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점〉에서 “(6)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에 따라 교과서에 漢字 併記를 할 수 있는 지침이 제시되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1:7). 이러한 지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 수학, 사회 교과서에서 漢字 併記를 하고 있다.³²⁾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漢字教育이 국가 教育課程에 언급되지 않았고, 指針도

없었지만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 중 8개에서 49종 212책의 초등한자 인정도서를 발행하였다. 이는 전체 초등학교 인정도서 1,069책의 19.8%에 해당된다(김진숙 외, 2009). 이외에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도 초등학교 漢字教育을 강화하고자 온라인 프로그램과 책자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등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감의承認을 받아 2014년에만 31종의 漢字 教科書가 인정을 받아 告示되었다. 주로 創意的 체험 활동 시간에 漢字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漢字教育을 강화하기 위하여 漢字 語彙學習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漢字教育을 할 수 있도록 재능 기부단을 모집하여 지도 강사를 배치하였다(한은수, 2014).

초등학교 도덕과 3학년, 4학년, 5학년 교과서에 15건, 사회과 교과서에 2건, 수학과 5학년 교과서에 1건의 漢字 併記를 하였다(김경자, 2015:9-10). 이에 그 併記 사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 초등학교 漢字 併記 사례

교과	학년	쪽수	사용 한자어	한자 사용 사례
도덕	3	68	효(孝), 늙을 로(老), 아들자(子)	효도 관련 단원의 '생각 열기' 활동
	4	45	인(人)	'따뜻한 공간, 인(人)터넷 세상'이라는 시 인용
		208	성씨(姓氏)	책자명을 그대로 인용
	5	17	미(美), 양(羊), 크다(大), 아(我)	보충 심화 학습 자료
		42-43	화기환(和氣丸), 인(忍), 마음(心), 칼날(刀)	보충 심화 학습 자료
		183	법(法)	스스로 해봅시다 자료
		197	선공후사(先公後私)	마음 가꾸기
사회/사회과 탐구	5-2	56	양이(洋夷)	삼화 설명
		48	등(燈)	삼화 설명
		49	화륜거(火輪車)	의미 풀이
		83	직선개헌(直選改憲), 축배(祝杯), 택시료(料), 시민(市民)	신문 내용 설명
수학	5-1	168	방전(方田), 직전(直田), 규전(圭田), 보(步)	이야기마당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漢字 併記는 본문보다는 단원 전후에 동기유발 및 보충 深化學習 활동 혹은 삼화에 실려 있다. 선정된 漢字가 語彙力 향상 또는 교과서의 핵심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1) 초등학교 漢字教育의 必要性和 時期

32) 이는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에서 “(6)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라고 한 것에 起因한다.

진철용(2009)에서는 교사, 학부모 공히 90% 이상이, 김진숙(2010)에서는 교사 77%, 학부모 89.1%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漢字教育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철용(2009)에서 語彙力 伸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김진숙(2010)에서는 교사들은 어휘력 신장, 교과와 주요 개념 이해로 응답했고, 학부모는 주요 개념 이해, 어휘력 신장 순으로 응답했다. 안진상(2011)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과학 교과서에 제시된 지구과학 관련 용어 분석을 통해 漢字가 교과와 주요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科學 교과서에 제시된 地球科學 관련 용어의 70%에서 80%가 漢字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과학 교육에서 漢字 理解는 지구과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漢字教育 시기에 대해 국립국어원(2005, 2010)의 국민 언어의식 조사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초등학교 漢字教育 시기

시기	2005년	2010년
초등학교 입학 전	8.2%	13.5%
초등학교 1-3학년	47.5%	45.3%
초등학교 4-6학년	31.3%	23.2%
합계	87.0%	82.0%

2005년, 2010년 두 조사 모두 漢字教育의 시기를 초등학교 이하에서 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87%, 82%에 해당한다. 특이한 사항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漢字教育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8.2%에서 13.5%로 증가했으며,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漢字教育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가 55.5%, 58.8%에 이른다.³³⁾ 참고로 韓國語文會에서 2001년부터 2014년 11월 현재까지 10년 간 실시한 全國漢字能力試驗 응시 수를 보면 초등학생이 65%, 미취학이 4%로 초등학교 이하의 비율이 69%를 차지한다. 漢字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의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전국 한자능력시험 응시 수

미취학	초등학생	전체
343,175명(4%)	5,010,057명(65%)	7,730,329명(100%)

현재 초등학교 1~2학년(군) 수업 시수를 국제 비교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 수업시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³⁴⁾

33)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의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漢字教育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 77.3%, 학부모 89.1%, 전체적으로 5,222명 중 83%인 4,334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온정덕(2014), “초등학교 수업시수 국제비교 및 적정화 방안 연구” 참조.

〈표 7〉 초등학교 1~2학년(군) 수업 시수를 국제 비교 단위: 시간(60분)

국가	한국	영국	미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1, 2학년 연간시수	560	645-765	845.5	570	864	798	646

한국(560시간)은 영국(645-765), 미국(845.5), 프랑스(864), 독일(798) 등에 비해 시수가 적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안전 생활’ 교과를 신설하여 학년별 주당 1시간씩 증배하기로 했다.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 시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도 많지 않으므로 ‘漢字’ 시간을 정규 시간에 確保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다.³⁵⁾ 그런데 초등학교 漢字教育 설계 시 유의점으로 흥미로운 학습을 위한 학습 모형 및 방법이 필요하고, 아울러 體系的 學習을 위한 教育課程 교재개발도 필요하다.

(2) 초등학교 適正 漢字教育 分量과 教育 方案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적정 漢字教育 분량으로 교사는 300자 이하를 30.5%, 300-450자를 29.1%, 학부모는 300-450자를 21.5%, 900자 이상을 20.7%가 선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재량활동으로 한자 500자를 가르치게 되어 있고,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를 학습하게 되어 있다.³⁶⁾ 송병렬(2010)은 초등학교 한자 분량은 400-600자 정도로 하는 것이 좋고, ‘한자 읽고 쓰기, 한자 어휘 이해하기, 한자성어, 고전을 번역한 글’ 등을 학습함으로써 중등학교 漢文教育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常用漢字 2,136자로 소학교 1,006자(1학년 80자, 2학년 160자, 3학년 200자, 4학년 200자, 5학년 185자, 6학년 181자), 중학교 1,130자를 학습한다. 이에 학년별 한자 분량은 좀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漢字教育 方案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에서 제시한 몇 가지를 제시하면 첫째, 漢字(漢文)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주당 일정 시간을 배정하여, 6년간 600자 정도의 한자를, 어휘 중심으로, 교과 전담 교사가 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이다. 둘째, 漢字教育을 국어 교과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다루는 방안으로, 국어 語彙教育의 차원에서 漢字 知識을 ‘도구적으로’ 활성화하는 안이다. 셋째, 정규 교육과정 문서 안에 ‘초등학교 교육용 기초 한자 목록’과 ‘지도상의 유의점’을 별첨

35)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의 조사에 의하면 漢字教育 담당으로 교사의 58.1%는 담임교사를, 학부모의 63.6%는 교과 전담 교사를 택했다.

36) 1951년 4월에는 4학년에 300자, 5학년에 300자, 6학년에 400자를 배정하였다.

자료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넷째, 교육과정 별첨 자료 방안과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내지 創意的 체험활동 안에서 漢字教育을 담당하도록 국가 교육과정에 明文化하는 방안 등이 있다.

漢字教育 方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漢字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자질문제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教育大學 교육과정에 漢字(漢文) 과목이 필수로 포함되어 교사들이 漢字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漢字(漢文) 과목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漢字(漢文) 지식 전달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자를 흥미있게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教授 方法 등이 필요하므로 한자(한문)을 專攻한 전담교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³⁷⁾

6.3.2. 중등학교 漢字·漢文 教育 方案

현재 중학교 교과서의 漢字 併記는 국어과에서 576건, 도덕 149건, 사회 72건, 역사 34건, 수학 28건, 체육 20건 등 모두 886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8〉 중학교 漢字 併記 실태

학년	국어	사회	수학	도덕	역사	체육	음악	기술가정
1학년	117	62	5	149	34	20	1	3
2학년	270	5	10					
3학년	189	5	13					
합계	576	72	28	149	34	20	1	3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의 漢字 併記 실태를 살펴보면 국어과 455건, 한국사 144건, 도덕 135건 등 총 789건 이상의 한자 병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9〉 고등학교 漢字 併記 실태

학년	국어	사회	도덕	기초 수학	수학II	확률과 통계	한국사	기술 가정	음악 이론	음악사	음악과 생활	운동과 건강	스포츠 문화
1-3	455	3	135	3	18	1	144	7	1	다수	1	10	11

현재 국어 교과서 괄호에 漢字를 併記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만 하고 있어 이를 확대해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없어진 〈학습 활동〉의 漢字, 漢字語 문제를 다시 부활해야 하고 사회, 국사, 과학 교과서 등 타교과서에도 漢字 併記와 주요 한

37) 송병렬(2010)은 교사 양성에 대해 ① 초등학교 교사 보습 교육 실시 ② 교육대학에 ‘한문’ 교과 설치 및 ‘한문과목’ 운영 ③ 초등학교 한자 전담교사 배치(교원대학교에서 초등학교 한자교사 배출 후 배치),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활용 배치 등을 제시하였다.

자어 풀이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언어 영역〉과 국어과 〈임용고사〉에도 漢字 문제를 출제해 漢字教育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으로 제3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漢文 과목을 독립시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과나 他 教科에서 필요로 하는 漢字語 教育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選擇 科目인 漢文 教科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漢字와 漢文 教育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方向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方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漢文 科目 必須化 方案

제6차 교육과정 이래 한문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면서 점점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어 傳統文化의 繼承 不在, 한자문화권에서의 落伍, 語彙力 빈곤 등 그 弊害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3차 교육과정에서 獨立 科目으로 신설되어 제5차 교육과정까지 漢文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것처럼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필수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요자 중심의 과목 선택화로 인해 한문 과목이 필수가 되기는 쉽지 않다.

(2) 國語科와 漢文科의 統合 方案

國語教育科와 漢文教育科의 통합, 國文學科와 漢文學科의 통합 방안이다. 21세기를 맞아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한자문화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漢字와 漢文 教育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학과 대 학과의 統合을 摸索할 필요가 있다. 진재교(2003)는 國語教育과 漢文教育의 相互補完이 필요하므로 교과서의 경우 국어와 한문을 통합하여 ‘한국어’라는 교과 명칭을 사용하고, 학과도 국어교육과와 한문교육과의 통합으로 ‘한국어교육과’로 명칭을 개선해서 사용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학과가 있고, 여기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와도 混同될 수 있다. 또한, 국어과에서 한문과가 分離되어 독립된 것이 국어과의 부분적 영역에서 나온 것이므로 국어과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냐는 문제가 남는다.

(3) 漢文科의 國語科 統合 方案

漢文科를 國語科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제 1,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漢文을 포함하였다. 1,2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한문을 국어과 교육과정에 포함한 것과 고등학교 한문 과목 역시 국어II의 ‘문법(4), 한문(6), 고전(4), 작문(4)’으로 편성한 점도 고전 文言文인 한문을 일상 언어생활에 사용되는 漢字와 漢字語의 연장 학습에 의한 도구 교과로 본 것이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국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한자 및 한문 지도’로 이루어졌으며, 고등학교 국어는 국어Ⅰ, 국어Ⅱ로 나누어 국어Ⅱ에 ‘문법, 한문, 고전, 작문’으로 편성하였던 것처럼 현행 중학교 국어 영역에 ‘漢文’을 추가하여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한문” 등 6개 영역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국어는 현행 국어Ⅱ에 ‘한문’을 포함하여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한문’ 등 5개 영역으로 하거나 고전과 한문을 통합하여 ‘고전과 한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들 수 있다.³⁸⁾ 이는 현실 문제를 감안한 實用的인 입장에서 나온 것이지만 漢文科의 정체성은 국어과의 부수적이거나 도구 교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문과가 이를 受容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이다.³⁹⁾

(4) 漢文科 선택 유지 및 國語科 漢字 및 漢字語 敎育 도입 방안

한문과를 현행 선택과목으로 유지하되, 국어과에서 기초 한자교육을 반드시 필수 지식으로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민현식(2012)은 〈한문 교육용 한자 1800자〉를 〈生活 漢字〉 또는 〈常用 漢字〉 개념으로 개정하여 기초 생활 한자 교육을 1000자 정도로 국어과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소한 常用漢字의 音訓 교육만이라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필수로 제공함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문제는 漢字敎育을 누가 하느냐는 것이다.

‘한자어’는 우리 언어생활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국어과와 한문과의 공통 범위이다. 漢字語 敎育은 한자의 造語力을 통해 효율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의 목적은 사회생활을 圓滑하게 하기 위해 언어생활에 필요한 語彙 能力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언어생활의 모든 면이 국어교육의 목표 달성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어는 한자어가 70% 정도 되므로 이를 效率的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音과 訓을 알고, 漢字가 결합한 漢字語를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국어 교과서에 제시하고 있는 漢字語의 풀이를 보면 漢字의 訓과 상관없이 단어의 전체적인 풀이로만 되어 있다. 따라서

38) 민현식(2012)은 한문과목의 선택학교가 줄어들면서 한문 교사의 학습 시간수가 나오지 않아 한문 교사가 국어과로 교원 자격 전환 연수를 하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한문과목을 국어과 하위 영역에 들어오게 하여 한문과목의 생존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과목 수를 다시 늘리지 않고도 한자·한문 교육을 회복하고 국어과 안에서 한문과목 영역을 존속하면서 한자·한문 교육을 국어과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이라 국어 교육과 한자·한문 교육을 모두 정상화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했다.

39) 진재교(2006)는 국어기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큰 틀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에 한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적 생활에서는 한자와 한문 교육을 자유롭게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공교육에서는 한문과의 정상적인 위상을 찾기 위해, 그리고 法古創新의 문화창조를 위해서라도 국어과와 한문과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訓에 기인한 漢字語 학습이 필요하다.⁴⁰⁾ 그러려면 한자와 한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한문을 복수 전공한 국어교사가 하든지 한문 자격증 소지자가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4. 國語 醇化 運動

국어 순화의 1차적인 對象은 주로 語彙에 局限시켜 진행해 왔다. 그 주요 成果는 광복 이후 지속적으로 펼쳐온 일본어와 일본계 漢字語를 醇化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일제의 지배하에 強制的으로 들어온 말이기 때문에 언어 순화에 관심 없는 사람도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으로 일본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民族意識의 발로에서 전 國民的 共感帶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起點으로 世界化의 물결 속에 동참한 우리나라는 先進國 대열에 合流한다는 목적으로 貿易 수출과 人力 해외 진출의 성과를 가져온 반면에 많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구계 언어, 특히 영어가 流入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세계 公用語인 영어의 位相은 중·고등학교 입학시험이나 평가시험,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직장 시험에서 가장 큰 要因으로 자리 잡아 갔으며 지방자치마다 영어마을 선포식을 갖는 등 온 나라가 영어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 영어는 어느새 우리 民族의 얼과 文化를 蠶食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大衆媒體의 발달과 인터넷 발달에 따른 영향으로 意思疏通의 手段이 문자로 되면서 文字言語는 더욱 중요시 되었다. 특히, Vachek(1973) 이후, 귀로 듣는 언어보다 눈으로 보는 언어의 表意主義 이론이 대두되어 正書法을 改定하는 일면의 動機附與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大衆媒體의 便利性和 速度성은 편지에서 전화로 대체해 오다가 匿名性을 보장받겠다는 점에서 간편하고 빠른 전자 문자로 바뀌면서 욕설 문화와 문자 파괴를 가져온 것이다. 이는 문자를 쉽게 쓰고자 하는 表音性(싫어 → 시러, 막힌 → 마킨 등)과 지나친 簡潔性(알았어 → 알썬, 선생님 → 쌤), 그리고 音聲言語 傳達性(가요 → 가용, 안녕 → 안농) 등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욕구 표현으로 나타나 우리 언어를 파괴하고 있다.

21세기 國語 醇化 운동은 言語의 차원을 넘어 文化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언어와 環境 사이의 相互作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문화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

40) 김왕규(2014)는 국어 교과서에 기술된 한자 어휘 의미는 국어 사전에 등재한 어휘 풀이에 근거한 방식으로 한자어를 구성하는 한자의 형태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시점에서 통용되는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한자의 음과 뜻을 통해 한자어의 의미 파악이 필요하므로 한자의 字義와 자의에 근거한 語義, 그리고 어휘 문법에 구조에 의한 의미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가야 한다.⁴¹⁾ 이에 국어 순화의 개념을 ‘쉽고 正確하고 品格 있는 우리말 쓰기’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우선 語彙 面에서 일본어와 한자어, 그리고 서구계 외국어를 순 토박이말인 고유어로 바꾸어 쓰는 것에서 벗어나서 서구계 외국어를 쉬운 漢字語와 고유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⁴²⁾ 다음으로 국어 순화 대상을 語彙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發音이나 표기상 잘못 사용하는 말도 바르게 고쳐서 사용하는 正確한 表記도 포함시켜야 하며, 文章, 談話 등 언어생활에서 非文法的인 表現도 순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내용적으로 品位가 낮고 속되어 品格이 현저히 떨어지는 人格 冒瀆 表現, 差別的 表現, 暴力的 表現, 卑俗語, 煽情的 表現 등 品格이 낮은 언어도 순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1) 語彙 選定 基準 설정

국어 순화의 1차적 대상은 어휘이므로 외국어·외래어를 순화할 경우 그 대상 選定の 基準을 정해야 한다. 이동석(2011)은 국어 순화는 일반 언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반영하여 일반 언중의 合意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進行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언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특정 어휘 및 표현의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에 대한 醇化 意志가 있는지, 순화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순화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영어 중심의 외국어·외래어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이라 民族語 精神 차원에서 우리 언어를 지키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표 4>과 같이 言衆들이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거나 고유어로 순화한 것이 어색한 것은 考慮해야 할 것이다.⁴³⁾

〈표 10〉 국어 순화 사례

멘토(Mentor) - (인생)길잡이

사이버대학(cyber 大學) - 두루누리대학

41) 황화상(2014:55) 참조.

42) 박용찬(2005)은 ‘우리말 다듬기’는 ‘순화’나 ‘정화’와 달리 ‘순수 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두루 포괄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으며, 1973년 창립된 ‘국어 순화 운동 전국 연합회’가 1975년 ‘우리말 다듬기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한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말 다듬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한자어가 아니라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남용이며 이는 신구 세대 간에 의사소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쉬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고유어나 한자어)로 다듬어 쓰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43) 권재일(2005)은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 정책이 주로 ‘言語의 精神’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토박이말만 가려 쓰자는 것으로 일관해 왔지만 이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따라서 국어 순화의 목표를 이제 ‘言語의 機能’인 意思疏通의 원활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민 대다수가 ‘웰빙’을 쓰고 있는데 외래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살이’로 순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펙업(spec-up) - 껌냥쌓기	컬러링(colouring) - 멋올림
롤모델(Role model) - 본보기상	하이파이브(high five) - 손뼉맞장구
블루투스(blue tooth) - 씹지무선망	스마트폰(smart phone) - 똑똑(손)전화
싱글맘(single mom) - 홀보듬엄마	에스라인(S-line) - 호리병몸매
엑스파일(X file) - 안개문서	와이파이(Wi-Fi) - 근거리무선망
퀵서비스(Quick Service) - 늘찬배달	

위의 사례들은 국립국어원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를 통해 순화한 말이지만 일반 言衆이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애써서 순화한 보람이 效用性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弘報 不足을 들 수도 있겠지만 이미 사전에 등재된 외래어나 대중에게 익숙해진 서구어는 대상에서 除外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고유어로 醇化할 경우에 그 의미 전달이 제대로 전달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 사례들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였으나 다시 외래어로 표준화한 것이다.

① 블루투스(blue tooth) 씹지무선망 → 블루투스(2005. 6. 14. ‘씹지무선망’으로 순화했으나, 2014. 3. 12.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심의에서 ‘블루투스’로 표준화함.) ② 스마트폰(smart phone) 똑똑(손)전화 → 스마트폰(2010. 4. 13. ‘똑똑(손)전화’로 순화했으나, 2014. 3. 12.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심의에서 ‘스마트폰’으로 표준화함.) ③ 스파이웨어(spyware) 정보빼내기 → 스파이웨어(2006.1.11. ‘정보빼내기 프로그램’으로 순화했으나, 2014.3.12.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심의에서 ‘스파이웨어’로 표준화함.) ④ 스팸메일(spam mail) 쓰레기편지 → 스팸메일(2004. 8. 3. ‘쓰레기편지’로 순화했으나, 2014. 3. 12.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심의에서 ‘스팸’을 ‘스팸’으로 표준화함. ‘쓰레기편지’라는 표현이 지나친 비하의 느낌을 준다는 점과 ‘스팸’이 전자 우편(메일) 외에 문자 메시지 등 다른 형태로도 유포됨을 고려함.) ⑤ 유비쿼터스(Ubiquitous) 두루누리 → 유비쿼터스(2004. 10. 19. ‘두루누리’로 순화했으나, 2014. 3. 12.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심의에서 ‘두루누리, 유비쿼터스’로 재순화함.)

(2) 醇化語를 만들 때 漢字語 活用

순화어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야 하므로 漢字語를 積極的으로 活用해야 한다.⁴⁴⁾ 한국어는 표현 수단인 表音文字의 고유어와 이해 수단인 表意文字의 한자어가 주를 이룬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수록된 어휘를 어종별로 보면 고유어(131,971개, 25.9%), 漢字語(297,916개, 58.5%), 外來語(23,361개, 4.7%), 混合語(55,523개, 10.9%) 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국어의 어휘에는 한자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漢字의 장점인 造語力, 縮約力을 활용해서 순화어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박용찬(2011), 김문오(2011)를 참고로 299개 순화어의 어종별 수와 비율을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⁴⁵⁾

<표 11> 어종별 순화어 수와 비율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 한자어	기타(혼종어)	계
수	67	99	125	8	299
비율	22.4	33.2	41.8	2.6	100

漢字語를 활용한 순화어는 한자어 99개(33.2%)인데 고유어와 결합한 한자어 125개(41.8%)를 포함하면 모두 224개(75%)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순화어를 만들 경우 일반 생활에 필요한 漢字語를 積極的으로 活用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⁴⁶⁾ 그리고 박용찬(2011:44-45)은 ‘우리말 다듬기’에서 선정·결정한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의 음절 수를 살펴본 결과 순화 대상어는 3.87음절이고, 순화어는 4.43음절로 오히려 순화어의 음절 수가 더 길다고 제시했으며, 순화어 중 漢字語는 2음절(215개, 82.7%), 3음절(33개, 12.7%)로 대부분 2,3음절이 주를 이룬다고 했다.⁴⁷⁾ 醇化語는 쉬우면서 간결할수록 좋으므로 음절 수가 짧은 것을 선택하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7. 結論

44) 南廣祐(1977)는 무엇보다도 漢字나 漢字語를 기피하는 편협성은 지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로 2천년 이상 사용해온 역사, 고유의 한자음 同化度로 보아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한자의 장점인 視覺性, 造語力, 縮約力 등을 이용하여 조어하는 것이 외래어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45) <표 2>에서 제시한 수는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2004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다듬은 순화어이다.

46) 교육부(2014년 9월 24일)는 2018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사용하는 교과서에는 漢字를 한글과 併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漢字 교육이 부족해 意味 疏通 등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2018학년에는 초등 3,4학년 교과서, 2019학년에는 초등 5,6학년 교과서에 한자 400-500자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교과서 집필기준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47) 박용찬(2011)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순화한 어휘 283개(2004.7.-2011.4.)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김문오(2011)는 299개(2004.7.-2011.12.) 순화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國語는 한국어를 우리나라 사람이 이르는 말로 固有語(해당 언어에 본디부터 있던 말)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와 漢字語(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로 이루어진 우리의 언어이다. 한글전용 정책의 문제점을 認識해 국민들이 漢字教育을 필요로 하고, 중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의 국가들이 세계의 주요 국가로 浮上하면서 한자와 漢文教育의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국어과와 한문과가 연대하여 공존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 한문 교과에서 漢字 및 漢文 教育은 당연한 것인데, 국어 교과에서도 漢字, 漢字語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교과의 利己主義를 넘어서 국어과의 도구성과 한문과의 정체성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언어교육을 하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役割 分擔이 필요한 것이다. 국어교육에서 漢字教育의 가장 기본적 근거는 漢字語 이해를 위한 교육으로서 그 존재 의의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에 인문교과 영역 신설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국어과에 인문 고전읽기 교육 강화, 토론교육의 활성화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고전읽기 교육 강화’에 ‘한문’을 넣는 것이 그 한 방법일 것이다. 진재교(2004)에서 제시했듯이 21세기 인터넷 등 媒體言語 시대를 맞이하여 언어환경 변화가 일어나 세계 공용어인 영어의 확산으로 한자어 자리를 영어나 외래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자와 한문 교육을 정상화시켜 한자문화권에서의 주요 役割과 주체적 대응을 해야 한다.

한국어의 대부분은 漢字語이므로 語彙力을 향상시키려면 漢字를 알아야만 하고, 그러려면 漢字와 漢字語 教育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漢文 教育을 통해 讀解力을 길러 우리의 傳統文化를 繼承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言語 精神과 言語 機能을 모두 중시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해 국어과와 한문과가 相互補完함으로써 共存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漢字가 國字임을 분명히 하는 語文教育의 政策的 轉換을 통해 21세기 漢字文化圈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물론 한국어의 세계화를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 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漢字·漢文 教育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중등학교에서 한문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거나 국어과와의 통합으로 교육과정 안에 한자 및 한자어에 관한 항목을 명시해야 하며, ‘고전과 한문’ 과목을 설정해 한문 독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造語力과 縮約力의 장점을 지닌 漢字 語彙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서구계 外來語를 醇化해야 한다.

[參考文獻]

- 국립국어원(2005),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2010),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 김경자(2015), 「한자교육 활성화와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에 관한 논의」, 『초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5년 8월 24일, 1-14면.
- 金敏洙(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 김진숙 외(2009), 『初等學校의 바람직한 漢字 敎育 方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우(2014), 「세계 속의 한글과 한국어」, 이해교육의 확장과 통합, 한국국어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4년 10월 18일, 11-23면.
- 김왕규(2007),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그 위상(位相)」, 『청람어문교육』 제36집, 1-26면.
- _____(2009), 「한문교육과정 개정·변천의 양상과 한문과의 위상」, 『漢文敎育研究』 제22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25-150면.
- _____(2014), 「漢字 語彙 意味 把握 經路」, 『漢字漢文敎育』 제35집,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 241-265면.
- 김왕규, 김경익(2009), 「중학교 재량활동 선택 과목 ‘한문’ 이수 실태와 고등학교 학생들의 한문 학력차 검사」, 『漢字漢文敎育』 제32집,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 271-338면.
- 南廣祐(1982), 『國語國字論集』, 일조각.
- _____(1996), 『東北亞 시대와 漢字.漢字敎育』, 『語文研究』,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류준경(2014), 「漢文敎育의 性格과 方向」, 『漢文古典研究』 28, 한국한문고전학회, 341-373면.
- 閔賢植(2002), 「漢字 論爭의 社會 政治 文化的 意味와 語文政策」, 『亞細亞研究』 110,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9~59면.
- _____(2004ㄱ), 「初等學校 敎科書 漢字語 및 漢字 分析 研究」, 『漢字漢文敎育』 13,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 185~230면.
- _____(2004ㄴ), 『中學校 敎科書 漢字語와 漢字 分析 研究』, 國立國語研究院.
- _____(2009), 「國語敎育 政策 改善을 통한 漢字語 敎育 強化 方案」, 『語文研究』 제37권 제4호, 439~463면.
- _____(2012), 「국어과에서 한자교육 위상의 재정립 문제」, 『신청어문』 40, 155-207면.
- 閔賢植 外(2008), 『公敎育 정상화를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
- 朴光敏(1999), 「한글전용은 한글을 욕되게 한다」, 〈신동아〉 99년 3월호, 동아일보사.
- 朴德裕(2006, 2009, 2012), 『학교문법론의 이해』, 역락.
- _____(2006), 「영어 배우느라 한글 잊었나?」, 〈동아일보〉, 2006년 2월 16일.
- _____(2007), 「한국어가 소멸된다고?」, 프레시안.
- _____(200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 『國漢混用의 國語生活』, 韓國語文會.
- _____(2009),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어휘력 신장 연구: 한국어 漢字 및 漢字語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제5권 1호, 85-103면.
- _____(2010), 『중세 국어문법의 이론과 실제』, 박문사.
- _____(2014ㄱ), 「國語 醇化와 21세기 言語文化 改善 運動」, 『語文研究』, 제43권 2호, 57-88면, 韓國語文敎育研究會.
- _____(2014ㄴ), 「국어(과)와 한문(과), 그 연대와 공존 방안」, 『漢文敎育研究』 제43호, 163-200면, 韓國漢文敎育學會.
- 朴泳穆·孫英愛·李三炯(1991), 『國民學校에서의 漢字敎育이 國語 能力 向上에 미치는 효과 실험 연구』,

- 연구보고 RR 91-20, 韓國教育開發院.
- 方仁泰(1997), 「初等漢字教育論」, 『韓國初等教育』 9-1, 서울교육대 初等教育研究所, 89~108면.
- _____(1998), 「한자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의 의식 조사」, 『漢字漢文教育』 4,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153~163면.
- 백광호(2007), 「사고 구술을 통한 한문과 독해 양상 연구」, 『漢字漢文教育』 18,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1~41면.
- 宋秉烈(2003), 「한문과 교육과정의 문제와 해결 방안 제기」, 『漢文教育研究』 21, 한국한문교육학회, 267-292면.
- _____(2010), 「初等學校 漢字教育 方向 定立과 實行 方案」, 『漢字漢文教育』 25,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7-29면.
- _____(2011), 「漢字文化圈의 再形成과 한국의 漢字·漢文 教育의 現況」, 『漢字漢文教育』 26,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9-43면.
- 신명선(2014), 「어휘 교육의 내용」, 『어휘교육론』, 61-99면.
- 沈在箕(1998), 「국한자 혼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冠岳語文研究』 23, 서울대 國語國文學科, 5~39면.
- 온정덕(2014), 「초등학교 수업시수 국제비교 및 적정화 방안 연구」
- 尹在敏(2007), 「2007년 개정 漢文科 教育課程의 구체적 내용 분석」, 『漢文教育研究』 29, 한국한문교육학회, 7-47면.
- _____(2009), 「韓國 初·中·高等學校의 漢字·漢文 教育 現況」, 『漢文教育研究』 33, 한국한문교육학회, 51-74면.
- _____(2011), 「韓國의 漢文科 教育課程」, 『漢字漢文教育』 26,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19-260면.
- 尹義淳(1988), 「光復 40년의 漢字·漢文 教育 概觀」, 『선청어문』 16, 서울대 국어교육과, 114-126면.
- 元容錫(2007), 「한문과 교육과정 변천과 내용 체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炳銑(2002), 「漢字語 사용량의 감소와 사고력의 쇠퇴」, 『語文研究』 114, 韓國語文教育研究會, 327~342면.
- 이상봉(2013), 「국어과에서 한문과 분리의 의미: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漢字漢文教育』 제32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67-305면.
- 이희수 외(2001), 『韓國 成人의 文解 實態 및 OECD 國際 比較 調査 研究』, 韓國教育開發院.
- 李漢東 외(2002), 『國語 概念의 定立과 국어기본법의 違憲性, 語文政策正常化推進會.
- 임성모(2000), 『翻譯과 日本의 近代』, 이산 [丸山眞男(마루야마 마사오), 加藤周一(가토 슈이치)] 공저 (1998), 『翻譯と日本の近代』, 東京: 岩波書店.
- 전광진(2015), 「한자병기의 이론 기초 및 기대 효과」, 『초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5년 8월 24일, 78-101면.
- 정달영(2004), 「한문교육과 국어교육의 관계 확립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 114호, 81-108면.
- 진재교(2003), 「고전문학에서 한문교육」, 『국어교육』 111, 한국어교육학회, 427-449면.
- _____(2004), 「제7차 교육과정 한문과의 성격, 목표에 대한 단상」, 『漢文教育研究』 22 한국한문교육학회, 13-38면.
- _____(2006), 「국어기본법과 한문교육의 방향:언어내셔널리즘을 넘어」, 『漢文教育研究』 27, 한국한문교육학회, 361-396면.
- 陳哲鏞(2007), 「初等學校 漢字指導 段階와 方法」, 『漢字漢文教育』 18,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1~31면.
- _____(2009), 「初等學校 漢字教育의 現況과 展望」, 『한글+漢字』 5월호, 85~90면.
- 陳泰夏(1996), 「韓國은 文字의 最理想國이다」, 『새국어교육』 52, 한국국어교육학회, 65~75.

_____(1999), 「漢字敎育과 국어생활의 正常化」, 『새국어敎育』 58, 한국국어敎育학회, 1~6.

_____(2015), 「초등학교 교과서에 漢字併記를 적극 支持」, 『초등학교 한자敎育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15년 8월 24일, 28-48면.

최경옥(2003), 『韓國 開化期 近代 外來 漢字語의 受容 研究』, J & C.

許 喆(2007), 「한문교과敎育학의 정의와 그 영역 분류」, 『동방한문학』 32, 동방한문학회, 391-431.

_____(2011), 「漢字文化圈의 變化와 漢字·漢文 敎育의 새로운 방향 모색」, 『漢字漢文敎育』 26, 韓國漢字漢文敎育學會, 77~121면.